

리아호나



**구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라는 선물, 18쪽**

희미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 속으로, 42쪽

니파이가 아버지와 나를 도운 방법, 56쪽

우흐트도르프 자매의 성탄절 추억, 6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북돋아 주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요한복음 14:21 참조) 진실로 지혜로운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앎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18쪽 참조.



예수님의 탄생, 필리스 루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나타난 새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리아의 품 속에서, 사이먼 듀이

“보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 모든 것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아울러 행하기 위함이니—아버지의 뜻이라 함은 나로 인함이요,

아들의 뜻이라 함은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라. 이에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지리라 하시니라.”(제3니파이 1:1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합시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크나큰 영향력

특집 기사

- 18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앞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돋아 주시며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 24 성전으로 가는 길
채드 이 패러스
우크라이나 후기 성도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지만, 모든 의의 길은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 가고 있다.
- 28 기회를 여는 열쇠: 영구 교육 기금 10주년을 기념하며
레베카 앳킨
2001년에 발표된 영구 교육 기금은 수많은 교회 회원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

- 34 잃은 자를 찾아서
애덤 시 올슨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한 부부에 관한 내용.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벗어난 음정, 올바른 목표
재널 비 프리먼

표지
앞: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뒤:
예수님의 탄생,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워드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 12 교회에서 봉사하며: 독신으로서 봉사하며
줄리 버데트
- 14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형태의 질문에 답하기
마이클 디 우드버리
- 16 복음 고전: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세상의 빛
제프 에스 맥킨토시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24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엎드려 절하세
패트릭 키아론 장로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도움말: 성탄절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



50

46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48 포스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49 나는 어떻게 아는가: 주께서 축복을 부어 주셨다
김 고웅

50 확실한 증거
칼 비 프랫 장로
모로나이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까요?

52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휘트니 힝클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적처럼 성취된 방법.

55 사려 깊은 선물
어린 그리스도께 바쳐진 황금, 유향, 몰약에 담긴 의미

56 그들이 변해야 했을까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라라 에르난데스
우리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나는 복음 원리에 상충되는 가족들의 생활 양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58 조셉 형제를 만나다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모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다.



72

59 특별한 증인: 구주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쿠엔틴 엘 쿡 장로

60 그런 말들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셀비는 친구들이 하는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2 우리를 이야기

63 성전 카드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경전은 구주의 탄생과 재림을 가르쳐 줍니다
제니퍼 매디

66 성탄절 트리
해리어트 알 우흐트도르프
어린 시절 독일에서 경험한 성탄절 추억.

68 나의 선교사 기금
스펜서 에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69 신앙개조
우리가 믿는 열세 가지 주요 신조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스,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후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패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피피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기구지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엘리사 메릴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러크,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레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커, 채드 이 패리스, 전 빈보로우, 리처드 엠 롬바, 멜리사 쟈네노, 폴 벤넨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김볼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무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트,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커,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알슨

통 관 제542호, 제48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i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 친한 혹은 지사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아,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다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11 Vol. 35 No. 12. LIAHONA(J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Liahona.lids.org

성인

영구 교육 기금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10년 전에 이 기금을 발표한 이래로 발전해 왔다.(28쪽 참조) 성공 사례를 더 읽고 싶거나 영구 교육 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거나 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pef.lids.org에 접속한다.

청소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가족들을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읽어 보고(24쪽 참조)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열린 **청소년 문화 행사**에 참여한 십대들의 간증이 어떻게 견고해졌는지 주의 깊게 본다. youth.lids.org("Kyiv Ukraine Temple(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검색)에서 영감 어린 비디오를 시청한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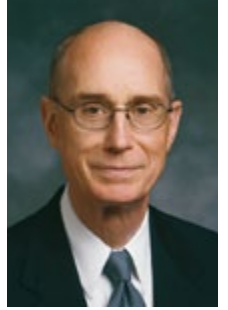
64쪽과 66쪽, 70쪽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는다. 그런 후 누가복음 2장을 바탕으로 만든 **첫 성탄절에 대한 비디오**를 본다. lds.org/new-testament-videos를 방문한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치기, 11, 16, 39, 40, 41, 42, 52, 55,
- 가족, 11, 34, 56, 66, 70, 72, 73
- 간증, 50, 소망, 42, 46
- 감사, 4, 속죄, 4, 14
- 개종, 49, 50, 56, 신앙, 69
- 교육, 28, 연설, 60
- 교회 역사, 8, 영구 교육 기금, 28
- 로렌조 스노우, 10, 예수 그리스도, 4, 14, 16,
- 모범, 7, 11, 60, 18, 42, 48, 52, 55, 59,
- 봉사, 4, 7, 12, 28, 38, 39, 64, 70, 80
- 40, 41, 68, 음악, 11
- 부름, 12, 조셉 스미스, 58
- 상호부조회, 7, 축복, 4
- 선교 사업, 39, 49, 50, 56, 치유, 14
- 68, 태도, 46
- 선지자, 52, 58, 표준, 60
- 성신, 50, 활동화, 34
- 성전 사업, 24, 63, 회개, 24, 34, 42
- 성탄절, 4, 9, 12, 18, 38,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합시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며(데살로니가전서 5:18 참조), 우리가 받는 축복에 항상 감사드리라고 명하십니다.(고리와 성약 46:32 참조)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계명들을 어기면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행복해지고 고통을 피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감사와 행복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보아 왔습니다.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고단한 삶 속에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종종 질병과 낙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슬픔을 겪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 또한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살 집이 없어지고, 먹을 음식이 떨어지며, 가족과 친구의 온정이 사라진 후에야 우리는 그것들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받은 가장 훌륭한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속죄, 부활하리라는 약속, 가족과 함께 영생할 기회, 신권 및 그 열쇠와 더불어 복음이 회복된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를 표하지 못합니다. 성신의 도움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낀 후에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입은 은택을 저버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는 않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련을 겪는 중에도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의 권능으로 우리가 당연시하는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느끼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도록 돕는 가운데 제가 받은 축복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모르는 사이인 한 부부가 저에게 병원으로 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제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정말 작은 여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심장과 폐에 더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부모의 부탁으로 아기에겐 신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에는 삶이 연장되리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준 축복보다 더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일, 즉 제 심장과 폐가 움직인다는 기적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과 주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라는 가장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친절 속에서 지낸다는 그 기적을 더 확실히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에 휩싸인 그 부모와 제 삶에 적용되는 속죄의 증거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죄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는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는 선택을 하고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라는 가장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모든 축복과 그 외에 우리가 받은 다른 모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으며, 그리하여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가 경험하고 축복받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면 더 잘 기억하고 후에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무엇을 감사히 여기는지 적어 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현재 누리는 축복을 인식하며,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어링 회장님이 도움이나 봉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모범을 따르라고 격려할 수 있다.

감사하라는 권고를 실천하세요

존 힐튼 3세, 앤서니 스윗

말 로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자고 하지 말고 직접 해 봅시다!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 보세요.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해 보세요.

1.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신체 능력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2.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소유물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3. 살아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열 명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4.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열 명의

- 이름을 적어 보세요.
5. 자연에 관해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6.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7. 지상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장소 열 군데를 적어 보세요.
 8.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현대 발명품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9.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음식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10. 복음에 관해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 열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런 목록을 만들다 보면 그 100가지 목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제가 받은 축복을 알게 해 주세요

펠 리페는 일상 생활에서 받은 축복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펠리페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서 펠리페를 도와주세요. 그림 속에 숨겨진 다음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집, 바나나, 강아지, 교회, 학교, 옷, 자전거, 기타, 공, 꽃.

여러분이 감사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어서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신앙 · 가족 · 구제

크나큰 영향력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주 님과 그분의 교회, 가족과 지역 사회에는 의로운 여성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

어떤 자매들은 자신이 그와 같은 원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훌륭히 이바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립되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좁은 자매는 아무도 없습니다.”² 또한 스노우 자매님은 상호부조회가 “모든 선과 고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³ 조직되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면 각 자매는 신앙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가정과 전 세계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영향력을 더 널리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상호부조회로서 쏟는 노력이 거창하고 부담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노력은 신중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습관을 실천한다면, 즉 매일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 경전 공부를 하고 교회 부름을 꾸준히 영화롭게 한다면 신앙을 키우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변화를 가져올까 하고 의심하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의를 수호하는 모든 자매는 악한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자기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모든 자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생활하는 모든 자매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햇불이 되며, 그들의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수확하게 될 의로운 영향력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방문을 받는 자매들이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
2. 내가 받은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구에서

고린도전서 12:4~18;
디모데전서 6:18~19;
모사이야서 4:27;
신앙개조 제13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으로부터 교회를 두루 다니며 감독들이 와드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았다. 스노우 자매는 나무에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당시 서기로 봉사했었다.

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스라엘의 딸들과 어머니 중에서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풍성하게 받은 선을 행하는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곳을 찾을 것입니다. …… 영 회장님은 그러한 장대하고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⁵

주

1.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2. Eliza R. Snow, “An Address”, *Woman's Exponent*, Sept. 15, 1873, 62.
3. Eliza R. Snow,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News*, Apr. 22, 1868, 81.
4.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5. Eliza R. Snow, *Deseret News*, Apr. 22, 1868, 81.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앨마서 37:6)

세계 교회 역사 탐방



멕시코

처음으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멕시코에 도착한 것은 1875년이었다. 선교사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움직였다. 한 무리는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스페인어 몰몬경 선집을 보냈으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나 개종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한 무리는 소노라 주

에르모시요에서 다섯 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들은 멕시코에서 첫 번째 교회 회원이 되었다. 4년 후, 1875년에 교회 출판물을 받은 지도자 중 한 명인 멕시코시티에 사는 플로티노 시 로다카나티가 자신과 몇몇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 왔다. 1885년에 몰몬경 전체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수년에 걸쳐 멕시코는 정치적으로 긴장 상태였지만, 초기 회원들은 한결같이 충실했다. 1961년 12월 3일에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스페인어 스테이크인 멕시코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교회는 멕시코에 여러 학교를 세웠는데, 1963년에 멕시코시티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가 그중 한 곳이다.

멕시코의 첫 번째 성전은 멕시코시티에서 1983년에 헌납되었다. 2000년에는 멕시코에 성전 여덟 곳이 헌납되었다.

2004년, 멕시코는 미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회원 수가 백만 명에 이르는 나라가 되었다.



1963년 11월 4일,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



멕시코 교회 현황	
회원	1,234,545
선교부	23
스테이크	221
워드 및 지부	2,009
성전	운영 중인 성전: 12, 건축이 발표된 성전: 1

초기 개척자들의 성탄절

매서운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개척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탄절 선물과 축하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초기 개척자들이 성탄절 무렵에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에 그러한 환경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개척자 시대에는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했는지 몇몇 기록을 살펴보자.

가장 행복했던 성탄절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맞은 첫 성탄절은 토요일이었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성탄절을 경축했다. 우리는 모두 요새 중앙에 꽂힌 깃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모임을 했다. 얼마나 훌륭한 모임이었단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개회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날의 연사를 아직까지도 기억한다. 감사와 격려하는 말들이 오갔으며, 비판적인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서로 악수를 했다.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울타리를 두른 땅에서 산쪽으로 지핀 불 주위를 돌며 놀았다. 우리는 모여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후 삶은 토끼 고기와 약간의 빵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먹을 것은 충분했으며, 더할 나위 없는 화평과 친절이 감돌았다. 내 생애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성탄절은 없었다.”
저자 미상,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인용, Kate B. Carter, comp., Our Pioneer Heritage, 20 vols.(1958~1977), 14:198

시간은 쏘살같이 지나가고

“내가 열여섯 살이던 해의 어느 밤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이룬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위해 성탄절 파티를 여셨다. 우리는 춤을 추었고, 형들은 음악을 연주했다. [남녀 네 쌍이 사각형으로 서서 추는] 스퀘어댄스가 한창이던 밤 열 시에 아버지께서 왜 연주를 멈추게 하고 파티를 마치려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았다. 아버지는 그날 밤 형들이 여러 번 나를 시계가 걸린 곳으로 들어 올려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 나는 매번 시계 바늘을 30분 뒤로 늦추어 놓았다. 파티가 끝난 시간은 분명 자정이 넘어서였을 것이다.”
크리스천 올슨 가족의 기록에서 발췌, Carter, Our Pioneer Heritage, 15:199

즐거워 시간

“1849년 성탄절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인형 하나 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막대 사탕도 없었고, 오두막에는 사과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과 부모들은 행복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조금 있고, 새로운 집에서 맞이할 장래에 대한 희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있어서 기뻐했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줄 인형이나 장난감이 없어도 성탄절을 잊지 않았으며, 그날이 끝나도록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존 로우베리의 오두막에서 모임이 열렸다. 첫 번째 모임을 했던 곳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옛날 풍습을 따라 춤을 추었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태껏 성탄절 모임에서 만난 이들 중 가장 즐거워 보였다. …… 그런데 음악이 걸림돌이었다. 악기라고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휘파람을 매우 잘 불었던 사이러스 콜이 개척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는 동안 휘파람 연주를 해주었다.”

Sarah Tolman, Kate B. Carter, comp., Treasures of Pioneer Heritage, 6 vols.(1952~1957), 4:197~198



위대한 삶을 기리며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



후에 제5대 교회 회장이 된 로렌조 스노우는 누이인 엘리자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열리는 선지자 학교 히브리어 수업에 가 보라고 권유하기 전까지는 침례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 학교는 조셉 스미스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참석하는 곳이었다. 로렌조는 곧 복음에 관심을 보이며 1836년 6월 19일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 후 스노우 장로는 이탈리아, 샌드위치 섬(현 하와이), 영국 등지에서 선교 사업을 했는데, 특히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몰몬경을 선물하기도 했다.

스노우 장로는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사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



축복사의 축복에서 그는 장수할 것이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스노우 장로는 사도와 선지자로서 오래도록 활발하게 봉사했다. 그는 또한 신권을 사용해 몇몇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 내기도 했다.

스노우 회장이 선지자로서 교회를 이끌던 시절, 남부 유타에 사는 후기 성도들이 가뭄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 남부 유타 세인트조지라는 마을에서 열린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스노우 회장은 성도들에게 십일조를 바친다면 비가 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들이 십일조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스노우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디 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청했다. 얼마 후, 그는 이런 전보를 받았다. “세인트조지에 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Francis M. Gibbons, *Lorenzo Snow: Spiritual Giant, Prophet of God*(1982)을 참조한다.



맨 위: 1865년경의 로렌조 스노우 사진. 가운데: 1900년,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 회장(왼쪽) 및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오른쪽)과 함께한 스노우 회장(가운데). 맨 아래: 스노우 회장이 권고한 대로 십일조를 바치고서 농사에 필요한 비가 오는 축복을 받은 후기 성도들.

벗어난 음정, 올바른 목표

재닐 비 프리먼

아 버지는 테너도 베이스도 아닌
어중간한 목소리로 두 파트
모두를 독창적인 음으로
노래하셨다. 가운데 ‘도’ 음과 반음 내린
‘라’ 음을 구분하지는 못하셨어도 큰
소리로 힘차게 부르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창피했던 기억은
없지만, 기쁨에 찬 그 소음이 재미있고
어리둥절한 적은 있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걸까?

아버지는 찬송가를 사랑하셨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재능이
부족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기쁨과 열정, 감성을 실어
노래하셨다. 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있게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이내
성찬 찬송을 부드럽고 경건히 부르시고는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무척 좋았다.

어느 오후, 아버지는 한 찬송가를
통해 길이 기억할 만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고등학교 시절에 종종 그랬듯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회만 되면
잠시라도 나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던 분이였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곁에 오셔서 내 연주에 합류하셨다.
노래책을 펼쳐 곡을 고른 뒤 내 반주에
맞춰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과 같은 일이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찬송가를 꺼내어 한
곡을 펼치셨다.

“이건 아주 훌륭한 곡이란다. 나도
무척 좋아하는 노래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피아노에 책을 올려놓으셨다.
그 곡은 “슬픔에 잠긴 나그네”였다.
아버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
노래를 특히 좋아했으며 카테지
감옥에서 하이럼과 함께 순교하기
직전에 존 테일러에게 불러 달라고
부탁한 곡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내 연주에 맞춰 7절까지
모두 부르셨다. 그 순간,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아버지는 한
번도 음정을 틀리지 않으셨다. 반음 내린
‘라’ 음을 이번에는 제대로 부르셨다!
꾸밈이 없고 단순한 그 목소리는 내게도
아름답게 들렸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덜 놀라운 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다.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동안 나는 아버지가 조셉 스미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 받은 조셉 스미스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느꼈다. 그리고 영은 내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임을 증거해 주었다.

아버지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자주 그날을 떠올리며 그 일이 내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음치’임에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신 아버지 덕분에 굳건히 다져졌던
것이다. ■



기회가 생기는 대로 가르치십시오

“모범으로
청소년들에게 길을
보여 주는 것 외에도

우리는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같은 방에 있거나 가족 활동과
교회 활동에 같이 참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음과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남도록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간증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전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가르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5, 98쪽.

독신으로서 봉사하며

줄리 버데트
교회 잡지

새 부름을 받고서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고, 머릿속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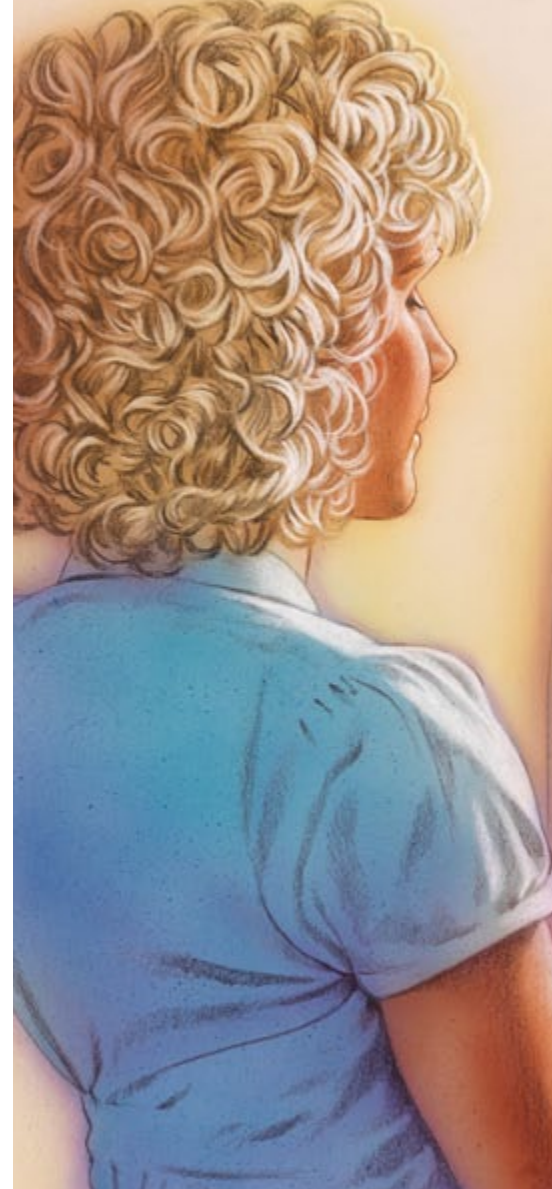
약 7년 전, 스물아홉 살 때 미국 오리건 주에서 유타 주로 이사했다. 그때까지 나는 독신 와드에 다녔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족 와드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늘 부모님께 교회 부름을 수락하라고 배워 왔기에 나는 일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 드리고자 감독님을 만나 뵈 약속을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다섯 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나는 그 일이 좋았다. 그런데 5개월 뒤에 감독님은 나를 초등학교 회장으로 부르셨다. 새 부름에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고, 머릿속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독신에다 자녀도 없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의아했다. 가족 와드에서 지켜본 바로는 행복하게 결혼하여 이룬 것이 많은 헌신적인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회장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주신 가르침을 떠올리며 새 임무를 받아들였다. 감독님은 "모든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해 의미 있는 부름을 찾아야 한다."는 지침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왔던 것이다. 나는 그 부름이 뜻하는 바를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나는 그 부름을 수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영감을 주는 순간을 많이 경험했다. 어느 해 성탄절



무렵에는 함께 나누는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 탄생 장면을 재연해보기도 했다. 노래를 부르고 목자와 요셉이 쓸 기다란 겂옷과 수건으로 된 두건도 준비했다. 천사 머리에 쓸 반짝이 관도 마련했다. 그리고 마분지에 포일을 씌워 동방박사가 쓸 관도 만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이야기를 재연하고 그 시기에 어울리는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데, 마리아 역을 맡은 어여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무릎을 꿇고서 아기 예수 대신 인형을 조용히 보듬어 안은 그 아이의 경건하고 온화한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그 순간 느낀 영으로 고무되어 구주를 보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또한 구주께서 이루신 사랑에 찬 위대한 사명에 대한 더 큰 간증이 생겼다. 그리고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감을 받아 그런 기회를 열어 주신 감독님에 대해 감사드렸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4:3) 사람들은 흔히 이 구절을 선교 사업과 연관 짓지만 나는 이 구절이 복음을 기초로 한 모든 봉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여부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가는 자녀이다. 그분은 우리가 발전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재능을 개발하며,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돕기를 바라신다.

이 와드에서 받은 환영과 사랑의 느낌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다. 봉사하고 싶은 내 소망을 알아보고 활용해 주었으며,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반겨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친절하고 세심한 지도자들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자녀들과 가르침을 주고받는 축복을 누렸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16.3.3.



애정 어린 관심

“많은 독신 성인들은 그들 삶에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와 회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리아호나*, 2007년 8월호, 4쪽.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형태의 질문에 답하기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앨마서 7:11)



속죄의 치유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상을 당해 길가에 쓰러진 우리를 발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누가복음 10:34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의 속죄에서 나오는 치유하는 권능은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쪽.

마이클 디 우드버리

몇년 전에 스쿠터를 타다가 미끄러져 길 한복판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 바로 그 찰나에 커다란 차가 들이닥쳤고, 나는 그대로 길 위에서 끌려갔다. 사람들은 사망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내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여러 가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식도 없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있는 동안 아버지와 몇몇 형제님들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신권 권능으로 축복하셨다고 한다. 그 이후 치료 과정은 기적 같았다. 그러나 몸에 일어난 일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적인 변화였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은 구주의 영향력을 향해 활짝 열렸다. 나는 사고 후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고 사고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으며 내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지상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신 평안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생애 동안 충실하게 남고자 하는 소망이 강해졌다. 나는 우연히 마주치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큰 신앙으로 금식하며 드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만약?”이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된다. “만약 죽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만약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됐다면?” “만약에 남은 평생 동안 극심한 고통과 싸워야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연차 대회에서 전한 “주의 힘을 입어”(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6~78쪽)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어 모든 것을 해내고,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능력을 주고 강화시키는 속죄의 힘을 받을 때, 제한된 필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인식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고, 행할 수 있으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힘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해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결과로서 오는 축복에 대해 간증을 하나 더 나눌지 고려해 본다.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형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속죄에 있다는 것이었다.

속죄 덕분에 나는 부활하고 병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 아내와 자녀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다. 이것 또한 속죄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삶에서 시련을 겪더라도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견딘다면, 속죄를 통해 우리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을 종착지로 이끄는 길 말이다. ■

“또 그가 사망을
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7:12)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11장 28~30절; 제3니파이 17장 7~9절; 브루스 시 하펜,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도의 벗, 1997년 4월호, 38쪽을 참조한다.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마빈 제이 애쉬튼은 1971년 12월 2일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다음 말씀은 애쉬튼 장로가 1988년 6월 5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했다.

제 기억에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 친구이자 스승이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부름과 책임과 영광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는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삶을 사신 방법으로부터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진정 그분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그러한 제 노력과 결심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저는 자주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며 힘과 인도를 얻고 그 모범을 배웠습니다. 거기 실린 몇 구절을 함께 읽어 보며 우리 삶과 예수님의 관계를 강화해 봅시다. 그 구절들과 단어들에서 저는 주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며 더 닮고 싶다는 소망을 얻습니다.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저지르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은 …… 그분을 모략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자 불결한 자로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 여자는 간음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혔고,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주님을 세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한복음 8:5] 하고 물으며 주님을 시험하고, 승산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범법 행위나 그릇된 판결로 고발당하실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내심을 잃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는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눈감아 주는 것도 옳지 못했습니다. …… 예수님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그분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 적막이 흐르는 동안에도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다. 짓궂게 던지는 이런 말들이 들리는 듯합니다. “자, 무슨 말이든 해 보라고. 당신이 졌어. 대답하기 두려운 건가?” 하지만 그 상황을 관장하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습니다. ……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겸손하고도 온화한 위엄으로 강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한복음 8:7] 완전한 분이 주신 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은 책임과 부름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교훈을 반복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먼저 다른 이를 비판하거나 비하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은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침묵하시는 주님께에서 고요한 힘을 느꼈습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에 그들은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에게 던질 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은 사람과는 함께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한복음 8:10] …… 예수 그리스도는 차분히 물으시고 대답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아, 우리가 좀 더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쉽고 훌륭하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

주님이 여인에게 고발하던 사람들에게 대해 물으시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힘찬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8:11] 주님은 그때와 똑같은 가르침을 지금도 주십니다. 그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힘과 자신감을 얻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인에게 권위적인 설교 대신 사랑을 주셨을 뿐입니다. 여인과 그녀를 고발한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비와 연민이 필요했습니다. 저지른 죄보다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신념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라 부르기에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가 있습니까? 집이 없거나 굶주리고, 의지할 데가 없으며, 추위에 떨고, 길을 잃은 모든 양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민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체험한 끝에 우리가 배우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그분의 빛을 따릅시다. 이 기록을 자주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보존되었음을 간증합니다. ■

철자, 구두점, 대문자를 표준화시킴. speeches.byu.edu에 접속하면 말씀 전문을 영어로 볼 수 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앎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십 이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모든 사도는 사랑하는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특권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삶과 성역, 필멸의 삶에서 말으신 사명에 대해 간증을 나누는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12월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연중 이 시기가 되면 그분의 겸손한 탄생을 기념합니다. 주님은 4월에 태어나셨습니다. 경전 기록뿐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증거는 주님이 유대의 유월절과 가까운 봄에 태어나셨음을 뒷받침합니다.(교리와 성약 20:1 참조)

경전에는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27 참조) 당시 약혼은 지금과 비슷했으며, 약혼 후에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가가 남긴 기록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필멸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에 대해 알려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누가복음 1:28, 30~32)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이시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리스도 의 종은 복자 파카 그리그의 기부 행대, 위인 회 송포마, 시 데리스 코르이, 사 황가를 비아, 개라: 배틀 제임 몽경, 1867. 니카놀 그리그리버저 제트나스프, 라사아, 포스크리머, 푸슈킨, 베클라프, 브리츠만, 국재 예수 도서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복음 1:34~35)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는 성스러운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습니다.(마태복음 1:18~19 참조)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이 받는 처벌에서 구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고심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태복음 1:20~21)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래된 히브리어 예호슈아 혹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라”라는 의미입니다.¹ 따라서 곧 예수라 이름이 붙여질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어야 할 분이었습니다.

물문경에는 니파이가 천사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천사는 니파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니파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감을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가 있는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16~21)

누가의 통찰력

성탄절 무렵에 자주 이야기되고 친숙하게 여겨지는 누가복음 2장 기사에서 우리는 훌륭한 점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누가복음 2:1)

모든 백성은 인두세 부과를 위한 인구조사에 응하고 로마



제국 시민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은 백성들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약 145킬로미터 떨어진 다윗의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적대적 관계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야했다면 더 먼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모이라는 명에 따르고자 여행길에 나선 다른 친지들과 함께 이동했을 것이며, 그 힘든 여정에는 분명히 개와 당나귀 같은 동물도 데려갔을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렀을 그 여관은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중앙에는 동물이 머무는 안마당이 있었고 그 둘레에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들이 있어 사람들이 묵었습니다.

것입니다. 사나흘은 가야 했기에 며칠 밤은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성스러운 아기의 출생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누가복음 2:7)

이 구절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 원문에 쓰인 단어의 뜻과 그 시대와 장소에 관한 문화를 이해한다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kataluma²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 접두어인 kata(혹은 cata)는 시간이나 장소에서 “아래”를 의미합니다. kata는 사람들이 흠어지는, 또는 여행을 하다가 쉬는 장소를 의미하는 luma라는 단어와 결합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에는 kataluma라는 단어가 두 차례 나오는데, 둘 다 “여관”이 아닌 “객실”로 번역됩니다.(마가복음 14:14; 누가복음 22:11)

당시 아시아 지역의 여관은 지금 우리가 아는 홀리데이인(Holiday Inn)이나 메리어트 호텔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숙박소는 여행하는 상인들을 위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이 잘 곳도 제공했습니다. 대상들은 당시에(그리고 현대까지도) caravansary 혹은 khan이라고 알려진 곳에 머물렀습니다. 사전에는 이 용어가 동방(혹은 아시아)에서 대상들이 밤에 휴식을 취하는, 넓은 마당을 둘러싼 여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³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중앙에는 동물이 머무는 안마당이 있었고, 그 둘레에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들이

있어 사람들이 그곳에 묵었습니다. 그 방들은 마당보다 약간 높았고, 주인들은 열린 출입구로 동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여관”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다고 한 것은 여관(caravansary)에 있는 작은 방들이 모두 차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관 주인들이 불친절했고 적대적이었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과 같이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람들의 친척들이 모여들어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들떠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아시아 지역 여관에서는 밤 동안 동물을 마당 한쪽에 모아 놓고 보호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당나귀, 개, 양, 그리고 아마도 낙타와 황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마당을 둘러싼 방들이 꼭 차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관 안마당에서 마리아가 해산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것처럼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강보가 두 번 언급됩니다. “강보로 싸서”(누가복음 2:7)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기저귀나 목욕 후 몸을 감싸는 유아용 담요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스어 신약 원문에는 이 어구가 단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sparganoos라는 동사인데, 길고 특수한 천으로 갓난아기를 좌우로 감싼다는

의미입니다.⁴ 이 천에는 아마 그 가족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는 특히 첫아들이 출생했을 때 시행되었습니다.

천사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누가복음 2:12)라고 전했습니다. 그분을 감싼 천은 분명히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독특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구유는 어땠습니까? 구유는 동물 먹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외양간에 놓은 여물통 혹은 상자입니다. 더러운 안마당 바닥에 놓인 구유는 아마도 그중에서는 가장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물통이 우리 구주의 요람이었습니다.

구주의 독특한 태생

구주께서 탄생하신 초라한 장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의 독특한 혈통입니다. 몇몇 성구에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라는 말이 나옵니다.(이사야 53:8; 사도행전 8:33; 모사이야서 14:8; 15:10) 이것은 “누가 그의 혈통을 말하리요?”라는 뜻입니다. 이전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멸하는 아버지와 필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능을 물려받으셨고, 필멸의 어머니에게서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점이 그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8)

그 독특한 혈통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분의 사명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제3니파이 27:13~15 참조) 그분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하시고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덤 너머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고자 태어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55; 모사이야서 16:7~8; 엘마서 22:14; 몰몬서 7:5 참조)

그분의 속죄는 겿세마네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누가복음 22:44

참조) 속죄는 골고다(또는 갈보리)에서도 계속되었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해골의 곳”을 뜻하는 골고다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마가복음 15:22; 마태복음 27:33; 또한 제3니파이 27:14 참조) 이 무한한 속죄에 따라 인류는 무한한 죽음에서 풀려났습니다.(니파이후서 9:7 참조) 구주께서 속죄하신 결과, 온 인류가 실제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모두에게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⁵

수 년 전에 구주 탄생 이전 년을 기념하는 해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 선언을 토대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왕국 열쇠를 맡은 열다섯 명은 간증을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 계신 그리스도”라 명명했으며, 당시 사도로 봉사하던 열다섯 명이 그 간증에 서명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앙으로 그분의 신성한 혈통과 예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특권이 있습니다. 참된 간증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12월 23일에 태어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며, 살아 계신 주님이 권세를 받은 성역자들을 통해 예언과 계시로써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간증도 포함됩니다.

가장 불안정한 시대인 현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앎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주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교리와 성약 68:6)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굳게 믿습니다.



구주께서 속죄하신 결과, 온 인류가 실제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모두에게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주께 드리는 선물

우리 앞에는 힘든 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죄악이 무르익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회원들이 박해를 견뎌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디모데후서 3:1~13; 교리와 성약 112:24~26 참조)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베드로전서 4:16)라고 권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 위로 오르시기 위해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신 모범을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과 함께 멩에를 멘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든 시련을 딛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1:29~30 참조)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성탄절이나 다른 어떤 때에라도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으로써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마음은 바로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주님의 성역이 충만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탄절에 그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몇만이 그분의 탄생을 알았을 뿐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인류가 알 것입니다. 그때 구주께서는 “지상을 여행하는 남자의 모습”(교리와 성약 49:22)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이사야 40:5; 또한 교리와 성약 101:23 참조)

저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돋아 주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요한복음 14:21 참조) 진실로 지혜로운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이 기사는 2002년 12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이다. speeches.byu.edu에 접속하면 영어로 전문을 볼 수 있다.

주

1. Eric D. Huntsman, "Glad Tidings of Great Joy," *Ensign*, Dec. 2010, 54 참조.
2. word numbers 2,596 and 2,646 in James Strong, "Greek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1890), 39, 40 참조.
3.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2003) "caravansary"와 "khan" 참조.
4. word number 4,683 in "Greek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66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6.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참조.



성전으로 가는 길

우크라이나 후기 성도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지만, 모든 의의
길은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 가고 있다.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우 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킬트세바
도로는 동트기 전에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키예프 성전으로 가는
비교적 한산한 길이다. 전조등으로 아침 안개
속을 비추며 도로에 드문드문 생긴 작은 웅덩이들
사이를 빠져 나가는 차량은 몇 대 되지 않는다.

전방 성전에서 발하는 불빛은 등대가 되어
성전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 준다.

2010년 8월에 키예프 성전이 헌납된 이래로
일부 회원들은 이 고요한 길을 따라 성전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반면, 다른 이들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동이 트고 태양이 지평선 위로 우뚝
솟아오르면, 자동차와 버스가 킬트세바 도로로
쏟아져 나온다. 차량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고요하던 길은 시끄러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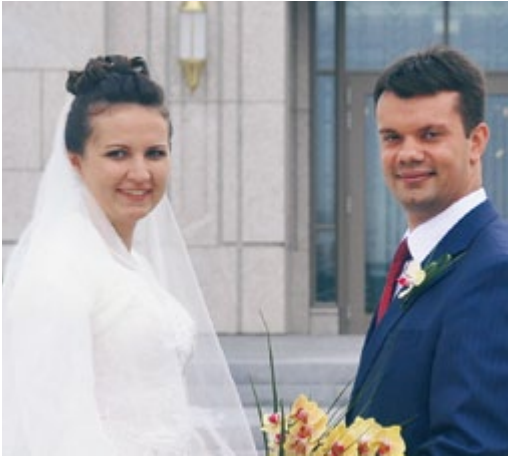
성전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통 체증을
이미 예상했기에 도로 위에서 조금씩 짧은 거리를
움직이며 참을성 있게 나아간다. 목적지는 여전히
성전이지만, 운전은 더디기만 하다.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성전 뒤에는
먼지가 날리는 도로와 뒷길이 많다. 방향이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차를 돌려야
하는 일이 곧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를
보기만 한다면 모든 이에게 성전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성전 첨탑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회원들이 주님의 집에 이르기 위해
밟은 영적인 길은 성전 주변 도로들과 다르지 않다.

일부 젊은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자신의 의식을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에 참석하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은
성전에 도착하기 위해 심한 영적 교통 체증 속을
뚫고 운전해 왔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이 1998년에
발표한 이 성전은 2010년에 완공되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스테이크의 많은 회원들은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좁고 느려 보이긴 해도
이 길에 머물며 성전이 완공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다른 이들은 일시적으로 성전이라는
목표를 시야에서 잃고 다른 길로 나아갔다.



회원들이 성전에 이르기 위해 택하는 영적인 길은 달라도 우크라이나의 충실한 회원들은 모든 의의 길은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고 있다.

곧은 길

동유럽에 사는 많은 청년 성인 회원들은 어린 나이에 복음으로 인도되었다. 이들은 일찌감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간증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품을 수 있었다.

카르키브스키 와드 소속인 니콜라이 케메조브와 아내 아시아 케메조브 모두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접했다. 당시 니콜라이는 여덟 살이었고, 아시아는 십대였다.

니콜라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침례를 받은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승영을 향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족의 신성한 사명은 늘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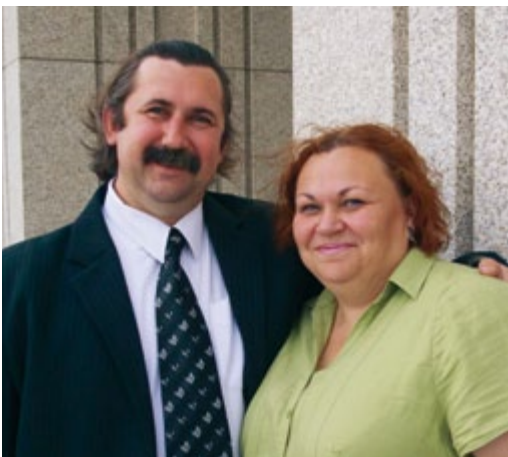
아시아 자매도 어려서부터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 참석하면서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늘 성전 결혼을 꿈꾸었고, 성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부는 2009년에 데이트를 시작했다. 사랑이 꽃피어 대화가 결혼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았다. 아시아 자매는 “키예프 성전이 2010년 8월에 헌납될 것이라 발표되었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인봉 받기로 했어요.”라고 말한다.

니콜라이 형제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죠.” 하고 말한다.

이 부부는 2010년 9월 1일에 성전 결혼으로 인봉되었다.

니콜라이 형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아시아의 손을 잡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졌죠. 바로 그날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저의 꿈이 실현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맨 위부터: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헌납되고 사흘 후에 인봉을 받은 아시아 케메조브와 니콜라이 케메조브. 페트르 미카일렌코와 아달리나 미카일렌코는 손녀인 마사가 고국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종종 성전 부지를 방문한 안드레이 두드카와 발렌티나 두드카.

먼 길

카르키브스키 와드 회원인 페트르 미카일렌코와 아달리나 미카일렌코에게 영원한 결혼에 이르는 길은 곧긴 했지만, 훨씬 더 먼 길이었다. 미카일렌코 가족은 키예프에 첫 지부가 설립된 지 꼭 2년 후인 1993년에 침례를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교회에 가입한 첫 번째 가족들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성전까지의 먼 거리와 그 외 다른 요인들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인봉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단념하지 않고

계속 서로에게 헌신했으며 영원한 결혼이라는 꿈을 간직했다.

페트르 형제는 “계속 인내하며 성전에 갈 날을 기다렸어요.”라고 말한다.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은 결코 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나아갈 길이 분명했으니까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2010년 8월에 성전을 헌납하자 이 부부는 인봉을 받았다는 열망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아달리나 자매는 “우리가 인봉을 받기로 한 날, 성전 문이 열리기도 전에 성전에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 부부만 성전에 온 것이 아니었다. 와드의 많은 회원들도 그날 성전에 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미카일레코 가족과 기쁨을 함께했다.

아달리나 자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인봉 의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 순간만큼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 사랑의 느낌은 그날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페트르 형제는 “우리 관계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우린 서로에게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하죠.”

길로 되돌아가

비노흐라다스키 와드의 안드레이 두드카와 발렌티나 두드카는 2003년에 이웃에게서 복음을 소개받았다. 이 부부는 몇 주 동안 선교사들을 만난 후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두드카 가족은 후기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복음 진리를 매우 흥미 있게 배우긴 했지만, 서서히 저활동이라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발렌티나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그냥 교회에 가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았어요. 다른 일들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었죠. 너무 피곤하다거나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다거나 하는 게 이유였어요.”

두드카 가족이 교회 활동을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의 행복에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안드레이 형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134번째로 세워져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은 9개국 회원들이 이용한다.

교회를 떠나고 나니,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사이에서 실제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한다. “우린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 약 4개월이 지나자 발렌티나 자매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일요일에 ‘내가 오늘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난 버텨 내지 못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날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했죠.”

발렌티나 자매는 다시 활동화된 후로 남편을 위해 지치지 않고 기도했으며 남편이 자신과 함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했다. 발렌티나 자매가 교회로 돌아온 지 약 반 년이 지난 후 남편도 돌아왔다.

안드레이 형제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내의 기도가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활동 회원이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드카 가족이 교회로 돌아온 후,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후기 성도들과 함께 2007년에 성전 기공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다.

안드레이 형제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후 우리는 종종 그곳에 들러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하고 말한다.

발렌티나 자매는 “그들이 첫 돌을 놓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었어요.” 하고 덧붙인다.

모로나이 천사상이 성전 꼭대기에 놓였을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중에 특히 두드카 가족이 그랬다.

안드레이 형제는 “마침내 성전 건축이 끝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고 말한다.

두드카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면서 인생에 관한 영원한 관점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한다. 발렌티나 자매는 “가족이 나와 남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제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우린 이제 서로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본답니다.” ■

영구 교육 기금 10 주년을 기념하며

기회를 여는 열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이 프로그램과 수혜자들은 계속 번영하고 있다.

레베카 옛킨
교회 잡지

18 50년,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하고 3년 만에 후기 성도들을 교육할 학교와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경륜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선지자는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을 장려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도 그중 한 사람이다. 힝클리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PEF)을 처음 소개했는데 이는 19세기에 브리검 영 회장이 도입한 영구 이민 기금을 따라 만든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 새로운 교육 기금이 힝클리 회장 재임 기간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다.¹ 힝클리 회장은 빈곤에 허덕이고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하여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 성인들을 보았다. 이에 힝클리 회장은 주님께 해결 방법을 간구했다.

2001년 3월 31일,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이 프로그램을 전망하면서 이는 “대담한 시도”이겠지만 “교육은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² 이때는 이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할 때였으며, 힝클리 회장은 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1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기부들이 이어지면서 영구 교육 기금과 수혜자들은 계속 번영하고 있다. 명예 칠십인이자 영구 교육 기금 상임 이사인 존 케이 카맥 장로는 이 프로그램을 “빈곤이 만든 저주에서 성도들을 구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라 칭한다. 그러한 ‘구출’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영원한 원리 위에 세워진 데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예언과 같은 약속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영구 교육 기금은 처음 시작된 이래로 10년 동안 서인도 제도에 사는 케빈 무어나 페루에 사는 수혜자들(왼쪽)과 같이 50개국 이상에 있는 5만여 명의 수혜자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숫자로 본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

지 난 10년간 영구 교육 기금은 47개국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안겨 주었다. 그 청년 성인들에 관한 통계 자료를 소개한다.

- 47%가 형제이고 53%가 자매이다.
- 34%가 기혼자이다.
- 형제 중 80%가 귀환 선교사이다.
- 82%가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
- 참여자 평균 나이는 24.5세이다.
- 교육을 마치는 데 평균 2.6년이 걸린다.
- 교육을 마친 후, 서너 배 더 많은 수입을 받게 된다.

훈련 및 의사소통 분야 책임자로 자원 봉사하는 렉스 앨런은 말한다.

대담한 시도

2001년에 핑클리 회장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자 기부가 이어져 기금이 조성되었다.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에게 대출되었다.

그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 성인은 해당 지역 신권 지도자나 종교 교육원 책임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이 “야망에 찬 젊은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는다.³ 그중 많은 이들이 귀환 선교사이다. 재학 기간부터 그들은 대출을 갚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핑클리 회장이 예언한 대로 51개국에 있는 5만여 명의 수혜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그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⁴

앨런 형제는 영구 교육 기금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날 선지자는 매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래 전, 모세가 홍해로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돌로 갈랐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핑클리 회장님은 빈곤이라는 어두운 바다 위에 예언자의 걸옷을 치켜 드시고는 영구 교육 기금을 도입함으로써 그와 같은 신앙을 보여 주셨습니다.”

원리

영구 교육 기금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교육, 일, 희생, 자립, 성실, 봉사와 같은 복음 원리를 토대로 한다. 전 세계에서 영구 교육 기금에 참여한 사람들과 졸업생들은 삶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한다.

콜롬비아 출신 졸업생인 카롤라이나 텔요 바르가스는 영구 교육 기금이 “희망의

빛줄기”였으며 또한 “[자신을] 인도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돕고 계시다는 증거였다고 말한다.

바르가스 자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며, 교육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도 잘 안다. 영구 교육 기금에 참여하기 전에 바르가스 자매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 여러 직장에서 일했고, 가지고 있던 보석을 모두 팔았다. 가족들도 희생을 치러야 했다.

“공부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바르가스 자매는 말한다. “훗날 더 나은 직업을 찾을 기회를 잡기 위해 저는 가까이 희생하려 했죠.”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는 가정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바르가스 자매는 영구 교육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학업을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셸리 므웰레스도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므웰레스 자매는 영구 교육 기금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수했으며, 보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 빠른 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았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에 대해 “확신과 신뢰”를 느꼈다.

므웰레스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보수가 더 많은 직업은 곧 더 나은 삶의 질을 의미했어요. 또한 제 부모님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했죠. 직업에서 습득한 기술과 교양은 교회 부름을 더 잘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므웰레스 자매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학업이나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겠다는 목표가 아니었다면 직업을 갖지도, 현재 제가 이룬 훌륭한 일들을 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룬 열 가지 결실

영구 교육 기금 상임 이사인 존 케이 카맥 장로는 이 기금으로 얻은 결실을 소개했다.

1. 자립과 성실을 키움: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다.
2. 영원한 진보를 촉진함: 다음 세상에서 유익이 될 예지를 이생에서 언다.(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3. 유능한 지도자들을 육성함: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는 더 나은 직업을 찾게 되다.
4. 교육을 통해 기회가 펼쳐짐: 특정한 훈련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되다.
5. 삶의 질을 높임: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마음을 열다.
6. 헌납의 법에 담긴 정신을 고양함: 모든 이에게 기부를 통해 서로의 거리를 좁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유하다.(교리와 성약 38:27 참조)
7.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도움: 교회의 핵심 의무를 완수하다.(교리와 성약 81:5; 83:6 참조)
8. 가족을 강화함: 빈곤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다.
9. 우수함이라는 전통을 세움: 복음 원리를 실천하다.
10. 구주께서 보여 주신 희생 모범을 따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다.



약속과 축복들

영구 교육 기금 발표 당시 핑클리 회장은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교회 전체가 고용과 봉사, 지도력을 키울 기회를 통해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핑클리 회장은 기금 수혜자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것이고 더 많은 수입과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할 기술을 습득하여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³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우루과이에 사는 파블로 베니테스를 포함하여 영구 교육 기금으로 혜택을 입은 수천 명을 통해 성취되었다. 식료품점에서 열두 시간씩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파블로는 어느 날 삶을 바꿔 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료와 각종 지출이 늘어나자 혼자서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짐을 깨닫게 되었다.

파블로는 영구 교육 기금을 받아 체육 교육학

필리핀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인 미리엄 에르퀴자는 여행사에 일자리를 얻었다. 이 직장에서 일하며 청년 회장과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할 시간을 얻게 되었다.



참여 방법

영구 교육 기금 대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pef.ids.org에 접속한다. 해당 지역 신권 지도자나 종교 교육원 책임자와 상의하여 시작한다.

1단계: 소망한다—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신이 속한 지역이 지원 대상 지역인지 알아보고 스테이크에서 열리는 교육 및 취업 노년의 모임에 참석한다.

2단계: 계획하고 자격을 갖춘다—해당 지역 종교 교육원에서 열리는 “성공을 위한 계획” 워크숍에 참석해 보고 지역 신권 지도자의 조언과 승인을 구한다.

3단계: 적용한다—“성공을 위한 계획” 워크숍에서 배운 사항에 근거하여 온라인으로 영구 교육 기금 지원서를 작성한다.

4단계: 약속한다—승인되었다면, 영구 교육 기금 대출 면접을 하고, 그 면접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5단계: 공부하고, 졸업하고, 더 나은 직장을 찾고, 대출을 상환한다—신앙을 행사하고 노력과 성실함, 전념하는 모습과 자립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학위 과정을 마쳤다. 그 결과 그는 수년간 여러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매년 수입이 늘어났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정규직이나, 혹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해 보겠느냐는 제의도 자주 받는데 더는 일할 시간이 없어서 거절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게 영구 교육 기금을 받아 학교를 마쳤기에 얻은 기회들 덕택이죠.”

교육을 통해 얻은 기회 덕분에 파블로는 교사로 일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앨런 형제는 십일조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게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전 세계 많은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헝클리 회장은 영구 교육 기금 참여자들에 대해 이렇게 약속했다. “수혜자들은 고국에서 이 위대한 사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십일조와 현금을 낼 것이며, 그 때문에 교회 사업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⁶

많은 수혜자들은 영구 교육 기금으로 교육을

브라질에 사는 반멜레이 리라는 임금 노동자로 일하며 6년 동안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영구 교육 기금으로 교육을 더 받게 되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다. 리라 형제의 스테이크 회장은 그를 “기회를 통해 자유를 맛보게 된 거인”이라 부른다.

받아 더 나은 직장을 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필리핀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인 미리엄 에르퀴자는 2년짜리 웹 디자인 과정을 마쳤으며 “강력한 기도”를 통해 여행사에 직장을 얻게 되었다. 에르퀴자 자매는 이 직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돕는 동시에 청년 회장이자 종교 교육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얻었다.

브라질에 사는 반텔레이 리라는 지부 회장으로 6년간 봉사하면서 지부에 있는 활동 회원이 18명에서 110명이 되는 데 기여했다. 리라 형제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원래 임금 노동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영구 교육 기금이 발표되자 산업 안전 분야를 공부하여 새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그는 오른 임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갚았다. 리라 형제는 요즘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그를 “기회를 통해 자유를 맛보게 된 거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자 아버지로 묘사한다.

헝클리 회장은 성공에 필요한 “조직[과] …… 주님의 헌신적인 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것이라고 교회 회원들에게 약속했다.⁷ 실제로 영구 교육 기금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수혜자 및 지역 신권 지도자의 협조가 어려워져 성공을 이어 오고 있다. 교회의 취업 자원 센터,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도 적극적으로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돈이 상환되면 또 다른 학생들에게 대출되어 기금의 영향은 금전 면에서



밝은 미래

“영구 교육 기금[은] …… 세계 여러 지역에 사는 회원들에게 빈곤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기술과 훈련을 통해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이 영감 받은 계획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으며, 이제 그들은 밝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7년 10월호, 6쪽.

기부 방법

이 기금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 성도들과,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용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구 교육 기금에 기여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해당 지역 영구 교육 기금 서비스 센터에 자원하여 시간제로 일한다.
- 배우자와 함께 부부 선교사로서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에서 전임으로 봉사한다.
- 영구 교육 기금에 기부한다.

영구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자와 기부자, 행정 관계자,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축복이 돌아가기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영구적인 파급력이 있다. 앨런 형제는 “교육은 단단한 벽에 달린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이 열쇠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과 경험이 쌓여 수혜자들과 협력자들을 위한 절차가 개선되었지만, 영구 교육 기금에 대한 예언적인 이상을 성취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한창이다. 이 “대담한 시도”는 변함없이 예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다. 몬슨 회장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며, 이 프로그램은 “미래로 멀리 뻗어 나갈 것”⁸이라고 말씀했다. ■

주

1. “16th President Fields Questions from Media”, *Church News*, 2008년 2월 9일자, 15면 참조.
2. 고든 비 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2, 67쪽.
3. 고든 비 헝클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1쪽.
4. 고든 비 헝클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2쪽.
5. 고든 비 헝클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쪽.
6. 고든 비 헝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2쪽.
7. 고든 비 헝클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7쪽.
8. 토마스 에스 몬슨, “16th President Fields Questions from Media”, *Church News*, 2008년 2월 9일자, 15면.

*pef.lds.org*에 접속하여 더 많은 영구 교육 기금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매일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말 것이다.

잃은 자를 찾아서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로버타 투일리무는 곧 서른을 앞두고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버타에게는 사랑스러운 세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인 대니얼 네피아를 사랑했다. 하지만 로버타와 대니얼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니얼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로버타는 오래전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었지만 후에

저활동 상태에 빠졌다.

로버타는 어린 시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매주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며 늘 꿈꾸었던 그 성전 결혼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로버타가 영원한 목표를 단념하게 된 것이 단 한 차례 결정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매일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서서히 진행된 점진적인 변화였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에스겔 34:16)

모순된 결정들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로버타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내디딘 그 한 가지 결정이 눈에 띈다. 로버타는 십대 시절에 숙제를 하려고 몇 주 동안 교회에 가는 일을 거르곤 했다. 로버타는 “당시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던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그렇게 몇 주를 빠지자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다. 수주 동안 드문드문 참석하는 일이 곧 여러 달이 되어 버렸다. 로버타가 열여덟 살이 된 후, 친구들은 토요일마다 늦은 밤에 클럽에 가자고 했다. 그 때문에 로버타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로버타는 클럽에서 술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로버타는 “옳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원하지만 한다면 당장 멈출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하고 그 일에 대해 말한다.

로버타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대니얼을 만난 후에 그를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경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버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그곳이었어요.” 하고 말한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다음 번에는 그런 결정이 더 쉬워졌고, 미래는 그녀가 바라던 목적지에서 멀어져 갔다. 곧 로버타와 대니얼은 함께 살게 되었다.

로버타는 “제가 원하고 또 옳다고 아는 것과 제가 내리는 결정 사이에 모순이 있었어요.”라고 설명한다.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지금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신다

로버타는 자신이 가고자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께게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대니얼과 로버타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누가복음 19:10) 오신 선한 목자는 그들을 줄곧 찾고 계셨다.

이른테면, 로버타가 대니얼을 성전 경내로 데리고 갔을 때나 로버타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대니얼은 영을 느꼈다. 몇 차례 이사를 할 때마다 우연히 선교사들을 만났고 이따금씩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간 후 옛 학교 친구인 댄 나단과 리사 나단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두 사람은 교회에서 활동 회원이었다. 대니얼과 로버타는 나단 가족이 속한 와드 경계 내로 이사를 간 것이었다.

로버타는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는 리사의 권유를 3주 동안 계속 미루었다. 로버타는 “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곧 대니얼과 로버타는 선교사들을 다시 만났다. 대니얼은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훌륭한 복음 원리반 교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정 방문 교사들이 매달 방문을 왔다. 이 부부는 특별한 영적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를 만나기도 했다.

로버타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돕도록 좋은 사람들을 많이” 준비하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의 길을 살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경험과 사람들을 통해 대니얼과 로버타에게 “[그들의 길을] 살필”(학개 1:7) 기회를 주셨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시편 37:5) 했다.

로버타는 “제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이사야 55:8~9 참조) 그 두 길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를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선교사들이 대니얼과 로버타에게 영적인 면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로버타는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곧 우리가 원하는 길이라고 마음을 정하자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한다.

로버타는 그 후 여러 달 동안 과거에 선택했던 좋지 않은 결정들을 버리고 십여 년 전에 떠난 그 길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십대 시절 작은 결정들이 시작이 되어 복음의 길을 떠나게 된 것처럼 로버타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매일 행하면서 그 길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로버타는 그 노력을 이렇게 설명한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여건이 될 때 사람들을 돕는 등 매일 기본적인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해졌죠.”

그런 작은 결정들은 대니얼과 로버타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후, 대니얼과 로버타가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한 지 거의 일 년이 지났을 때 대니얼은 결국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침례를 받았다.

대니얼과 로버타는 매일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와 일치하도록 2년 동안 노력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로버타의 어린 시절 꿈이 실현된 것이다.

영원을 위해 오늘을 산다

대니얼과 로버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로서 매일 자신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이 부부는 이제 매일 하는 선택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잘 안다.

매일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영원한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쉽게 길을 잃게 되는지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았다. 또한 돌아오는 길이 있음을 직접 배웠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로버타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삶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었지요. 제가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의 사랑과 속죄 희생 덕분에 “악인은 그의 길을 …… 베[릴 수 있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7)

이제 네피아 가족은 자신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에 계속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대니얼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많은 것이 이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선택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라고 말한다. ■



결정은 운명을 정한다

“오래 전에 역사가 작은 경험들로 결정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이 운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Decisions Determine
Destiny,” *New Era*, 1979년
11월호, 4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

뉴질랜드 북섬에서 처음으로 보낸 성탄절, 그곳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땅이었지만, 그 햇살도, 교회 회원들이 베푸는 친절도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고통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 해 초에 우리는 미국에서 이사를 왔고, 나는 향수병을 앓았다.

새로운 지역에서 나와 남편은 월슨 가족과 친구가 되었다. 월슨 가족은 다른 기독교를 믿는 젊은 아일랜드인들로, 그들 역시 최근에 뉴질랜드로 온 터였다. 놀린 월슨은 내 직장 동료였다. 우리는 이민 생활에 대한 경험과 새로 이사한 집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곧 좋은 친구가 되었다. 우정을 키워 갈 무렵, 나는 월슨 가족 역시 억눌린 느낌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고 넷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유독 쓸쓸함과 자기 연민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나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월슨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에 남편과 나는 월슨 가족네 현관에 익명으로 편지와 작은 선물을 남기는 일을 시작으로 12일 동안 그들과 성탄절을 기념하기로 했다. 매일 밤, 월슨 가족 집으로 몰래 가서 편지와 선물을 두고 문을 두드린 후 웃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는 일을 하면서 내 외로움은 흥분과 기대로 바뀌었다.

놀린은 매일 직장에서 내게 전날 밤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신비에 싸인

‘성탄절 요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성탄절을 선사한 요청의 방문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들려주었다. 몇몇 밤에는 와드 청소년들도 합류하여 그 즐거운 일에 동참했다.

마지막 날이었던 성탄절 전야, 월슨 가족은 현관에 요청을 만나게 해 달라는 쪽지와 함께 쿠키를 남겨 두었다. 마지막 선물로 청소년들과 함께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열광했고 월슨 부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껴안았다. 내 마음속에 가득하던 외로움은 사랑과 기쁨에 그 자리를 내 주었고 두 가족을 묶은 우정의 끈은 더 단단해졌다.

후에 월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한 남성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는 우리가 월슨 가족을 위해 한 일에 큰 감명을 받은 나머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는지 물어왔다. 그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12일 동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는 경우를 처음 접했고, 그 전통을 후기 성도와 연관지어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보낸 첫 번째 성탄절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그때 나는 자신을 잊고 나아가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했다.”(모사이야서 18:9)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외로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말이다. ■

앤젤라 펠렌타인, 뉴질랜드

마지막 선물로 청소년들과 함께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열광했고 월슨 부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껴안았다.



오브레곤에서 온 성탄절 카드

멕 시코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에 동반자와 나는 캘리포니아 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멕시코 북서부 도시 오브레곤 출신의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차를 타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10분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물문경 한 권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전부였다. 당시 우리 선교부에는 오브레곤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가 없었다.

몇 달 후에 나는 오브레곤에서 온 성탄절 카드를 하나 받았다. 카드를 보며 누가 보낸 것인지 몹시 궁금했다. 그러다가 우리가 1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남자가 보낸 카드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카드를 다른 장로들과 내가 받은 성탄절 카드들과 함께 숙소에 걸어 두었다.

성탄절이 지난 후 카드를 정리하는데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으나 마음에 번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

몇 달 후, 선교부에서 보낸 월간 통신문에서 나는 오브레곤 지역에 선교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읽게 되었다. '그 도시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만난 그곳 출신 남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성탄절 카드를 찾아냈다. 그리고 카드 위에 이렇게



성탄절이 지난 후 카드를 정리하려는데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적었다. "이 장로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형제님에게 복음을 더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런 후 오브레곤에서 봉사하는 장로들에게 카드를 보내면서 그 카드를 들고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브레곤 지역 장로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라모스 장로님, 사실은 선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선교부 회장님이 선교사들을 이곳에서 철수시킬 계획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장로님의 카드를 받았지요.

우리는 그 형제님을 방문했고, 그분은 우리 메시지에 크게 감명을 받아 가족 모두와 친구들까지 만나게 해 주었어요. 이 형제님 덕분에 이곳은 지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지금, 오브레곤 지역에는 스테이크 세 곳이 조직되어 있다. 나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오브레곤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 일을 돌아보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
로버트 라모스, 미국 오레곤

먹을 것이 없었다

성 탄절을 하루 앞두고서 나는 걱정에 휩싸여 새벽에 잠을 잤다. 우리에게서 그날 밤 성탄절 저녁 만찬에 쓸 음식도, 그것을 마련할 돈도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서 나의 친자매인 에딕타와 함께 살던 시절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특별한 날인 la Noche Buena(성탄절 전야)에 먹을 음식을 조금이라도 주시기를 애원하며 간구했다.

이내 내 마음은 평온으로 가득해졌다. 부드러운 음성이 “모두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듯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에딕타를 깨운 뒤 현관을 쓸러 나갔다. 그런데 건너편에 사는 이웃이 나를 보고는 건너와서 내가 수놓아 준 성탄절 식탁보와 장식물 값으로 1,000볼리바르(베네수엘라 화폐 단위-옳긴이)를 주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방에 있는 에딕타에게 달려가서 돈을 보여 주었다. 에딕타 역시 놀라워하며 돈을 어디에서 구했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26)라고 답했다.

몇 분 뒤, 밖에서 에딕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이웃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분은 동생에게 바느질솜으로 약속한 1,000볼리바르를 주었다. 우리는 아침과 점심, 거기에 저녁거리까지 모두 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자 한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구는 성탄절 전야를 홀로 보내기 싫다면서 la Noche Buena를 함께 지내도 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집에서 조촐하게 저녁식사를 할 테지만 함께해도 좋다고 승낙했다. 친구는 식사 비용으로 2,000볼리바르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잠시 후, 조카딸이 양념 고기 15킬로그램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오겠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정오가 되자 또 다른 조카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렀다. 그 가족은 저녁에 음식을 가지고 올 테니 함께 성탄절 전야를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대한 만찬은 아니겠지만 모두가 먹을 만큼은 될 거야.” 하고 우리는 말했다.

그날 저녁, 에딕타와 나는 닭 구이와 감자 샐러드, 레몬 디저트와 전통 코코넛 푸딩 디저트인 마하레테를 만들어 모든 손님과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큰 축복에 감사를 드렸다. 그날 우리는 신앙으로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

에스텔리타 차신 하트, 미국 유타 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다.

린다의 마지막 성탄절

브 리검 영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와드 감독단은 와드 단위로 산타클로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궁핍한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지원자 명단에 우리 와드 이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우리가 도와줄 가족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감독님의 보좌 한 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만한 가족을 알려 주셨다. 우리가 그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홉 살부터 열다섯 살까지 아들을 여럿 키우는 린다(가명)는 유방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린다가 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동안 남편은 그녀를 떠났다. 다른 주에서 살던 린다는 직장을 구하려고 유타 주 프로보로 이사왔지만 직업을 얻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린다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구주께서 린다를 보시는 그대로, 즉 많은 시련을 이겨낸 훌륭하고 고귀한 영으로 린다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원한 친구였다.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린다와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기부했다. 우리는 모두 젊은 대학생이었고 우리도 역시 가난했지만 린다를 사랑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내주었다.

린다는 우리 와드 성탄절 파티에 왔고, 그 사이를 이용해 몇몇 와드



린다가 우리 와드 성탄절 파티에 와 있는 동안 몇몇 와드 회원들은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찬장과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웠다.

회원들은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찬장과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성탄절 트리를 장식했고, 트리 주변에는 그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들을 놓았다. 그들은 또한 차량용 새 타이어 네 개를 놓아두었고 몇 달치 집세도 지불했다. 우리가 낸 얼마 안 되는 기부로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희생으로 린다를 축복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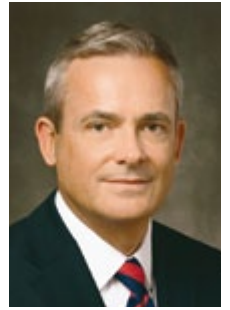
그로부터 일 년 후, 나는 다른 학생 와드에 속해 있었지만 성탄절 무렵에 그곳으로 돌아가 감독단을 방문했다.

그들에게서 린다의 남편이 다시 돌아왔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 무렵에 আমি 재발해 린다는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우리가 준 도움이 린다에게는 마지막 성탄절 선물인 셈이었다.

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서 7:47)을 매우 강하게 느꼈으며,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가 구주를 대신해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매우 귀중한 영적 은사임을 알게 되었다. ■

제이 오드리 해머, 미국 유타

패트릭 키아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엎드려 절하세

저는 작년 성탄절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봉사하던 중에 역전 현상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기상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역전 현상이란 지면에 가까운 공기가 위쪽 대기보다 차가워진, 평소와 반대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현상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특히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역전이 일어나면 도시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그대로 대기 중에 갇힌 채 계곡 아래에 정체되어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주변 지역은 짙고 어둡고 차가운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스모그는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해롭고 많은 사람의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이나 밝은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위로 조금만 운전해 올라가면 스모그는 고작 백여 미터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몇 분만 가면 밝은 햇살 아래에서 수정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으로 덮인 깨끗한 산마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곡과는 무척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산 위로 좀 더 올라가서 보면, 계곡에 남기고 온 스모그는 마치 새파란 하늘 아래를 덮은 더러운 담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곡을 덮은 탁한 공기에서 빠져 나와 밝은 햇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주께 나아갈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화평과 희망이라는 빛 말입니다.



살다 보면 짙은 스모그로 가득한, 안개 낀 우울한 계곡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이나 영을 거스르는 행동, 또는 현세에서 으레 부딪히는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결정과 어려움 때문에 숨 막힐 듯 짙은 안갯속에 빠진 느낌이 듭니다. 시야가 흐릿하고 혼란스러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느끼는 빛과 따스함에서 멀어져 버렸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순수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며 손짓하고 있으며 신앙으로 몇 발자국만 움직인다면 그 빛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곡을 덮은 탁한 공기에서 빠져 나와 밝은 햇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주께 나아갈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화평과 희망이라는 빛 말입니다.

이 성탄절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께로, 그리고 빛 안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경전을 살펴보면 구주께서 태어나셨을 때 문자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고 어떤 이들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계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구주께로 나아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등 어린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직접 뵙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초대에 충실히 응한 그들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역전 현상,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우울함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올리는 길을, 즉 세상의 빛께서 주신 맑고 순수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제자가 되기 위해
들판에 양을
버려두거나 사막을
건너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 가는
여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행동이 수반됩니다.
여기에는 주께서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누구이며 이 영원한 계획에서 어느 지점을 걷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역전 현상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올바른 시야가 회복됩니다.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널리 알려진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 즉 베들레헬

근처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자] …… 크게 무서워[했습니다.]”(9절) 그러나 오랫동안 예언된 구주이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10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구주를 알아볼 표적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표적은 구주께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다]”(12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사자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자 목자들은 곧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헬으로 가서 ……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15절) 그들은 “빨리

가서”(16절) 천사가 말한 아기 그리스도를 찾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20절) 그들은 구주께서 나셨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나누고자 “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17절)

우리도 목자들처럼 영이 속삭일 때마다 빨리 가서 즉시 응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절대로 속삭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¹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삭임이 들릴 때, 때로는 영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인도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속삭임에 충실하게 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경험에서 얻은 기쁨과 간증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앙과 소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간증을 확고히 하며, 구주와 그분의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므온

아기 그리스도를 보는 축복을 받은 또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성신의 속삭임을 자주 듣는 “의롭고 경건[한]”(누가복음 2:25)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26절)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그 축복받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23절)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려온 날, 영은 시므온에게 성전에 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28절) 거룩한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예언했습니다.(32절)

시므온은 의롭고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있었고, 마침내 빛을 찾고 그 빛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신의 속삭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노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길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는 힘을 길렀기 때문에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 있었으며, 주께서 주신 약속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기회를 받고 우리 인생에 주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펼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인생의 교차로에 서 있을 때에는 명확한 생각과 올바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연히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역전층 아래 어두운 계곡에 갇혀서 움짱다짱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올바른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 우리 인생에 자리 잡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사하는 밝은 햇살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나

“선지자”라고 묘사된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미망인이었습니다.(누가복음 2:36) 꾸준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37절) 모습에서 안나가 오랜 세월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38절)

우리는 안나의 경험에서 꾸준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배웁니다. 성전에 가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전 추천서를



무지들에게 선포된 소식, 엘 페스: 감사 기도 드리는 시므온 로버트 티 베넷; 바라는 것의 실상, 엘스페스, 영: 복시 금지; 도화: 마에를 엘브레투스, 복시 금지



합당하게 지님으로써 우리 삶에 흘러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전에 참석할 수 없는 여건에 있더라도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라고 계속 권고했습니다.²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화평과 희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어두운 순간에 자신을 들어 올려 감사라는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에 충실히 응한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역전 현상,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우울함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올리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2절) 표적을 알아보아 먼 길을 여행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헌물과 예배를 선물로 준비하여 구주를 찾아온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2절) 하고 물었습니다. 오래 헤맨 끝에 어린 그리스도를 찾은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렸습니다.(11절) 그들은 헤롯에게 속을 뻔했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며] ……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12절)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따랐으며, 헤롯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이 신성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동방박사에게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구주의 재림을 위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경전을 공부하여 우리가 살펴야 할 표적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한다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충만하게 구하고 그분께 바치는 선물로서 이기심과 교만, 반항심을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믿음과 신뢰로 계시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구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들판에 양을 버려두거나 사막을 건너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여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행동이 수반됩니다. 여기에는 주께서 이루신 속죄가 무한하며 그 속죄가 우리의 죄와 약점, 고난과 질병, 연약함 등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엘마서 7:11~13 참조) 그것은 우리를 역전이라는 우울한 안갯속에 가두는 일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이신 구주의 따스함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주신 다음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말은 초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이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입니다.”³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75쪽.
 2. 예를 들어 다음 말씀을 참조할 수 있다. 하워드 터블유 헌터,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49쪽.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

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온 지구에 절망스러운 일과 나쁜 소식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시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주께서 주신 “기뻐하라[라]”(교리와 성약 68:6)라는 계명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 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르게 견고 계명을 지키는 한 우리를 위로하고 지탱해 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더없이 암울해 보이고 지평선에 이는 폭풍우가 사그라질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복음을 이해한다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으며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웃으세요



몇 년 전 본부 청년 회장단은 100퍼센트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몰몬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런 다음 웃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제를 받아들여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그렇게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제 덕분에 제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 행복해졌고 영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역경과 맞서야 했지만 영은 제가 행복하게 견뎌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리아나 지, 16세, 미국 버지니아 주

희망을 품으세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웃고 희망을 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희망은 제 삶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그분에게서 평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희망을 얻고 치유받으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코리 디, 18세, 미국 유타 주

속죄를 생각하세요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를 깊이 생각할 때면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생에서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속죄 덕분에 현세적이고 영적인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를 통해 그 해결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커다란 증거입니다. 속죄는 무한하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대릴 에이, 18세, 필리핀 라구나

계속 충실하게 생활하세요



이 험난한 시기는 주님이 마련하신 계획 중 일부이며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경전을 통틀어 주님은 의로운 사람들은 축복받고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성신은 이 격변하는

시기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위안을 줄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마련해 두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축복문을 공부하세요.

레이 비, 17세, 미국 워싱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험난한 시기이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 제가 받은 축복과 복음에 대해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쁨과 희망을 연습니다. 곁에 있는 친한 친구와 같은 단순한 축복에서도, 또는 구원의 계획처럼 장대한 축복에서도 차고 넘치는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소망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네트 엠, 15세, 미국 미시간 주

성전을 기억하세요



낙담할 때면 저는 청년 주제 끝머리에 나오는 이 말을 음미해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저는 여기에서 위안을 얻으며 이 말이 제 삶과 모든 정결한 청년의 삶에서 성취될 것임을 압니다. 저는 확고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소망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 오는 축복은 끝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제 마음은 기쁨, 희망, 사랑,

용기로 가득 찹니다.
나탈리아 엠, 18세, 베네수엘라 메리다

이기는 팀에 속하세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주님의 팀이다.’ 정말

단순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팀에 머물고자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곧 주님께 우리가 그분의 팀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그분의 유니폼을 입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브레이든 에프, 17세, 미국 유타 주

감사하는 자세를 기르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 일지”를 기록하고 매일 감사드릴 일을 한 가지 이상 적습니다. 일진이 몹시 나빠 보이는 날에도 늘 감사할 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세어 보세요. 감사하는 자세를 기르다 보면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애실리 에이치, 18세, 미국 오클라호마 주



여러분의 멋진 미래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이런 표준을 지키고 경전에 있는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 저편을 내다보게 되고 커다란 기회와 책임이 있는 찬란하고 멋진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오래 견딜 것이며, 인생에 관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1회회장단 제2보좌, “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4쪽.

다음 질문

“저도 성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성전에 관해 묻는 친구에게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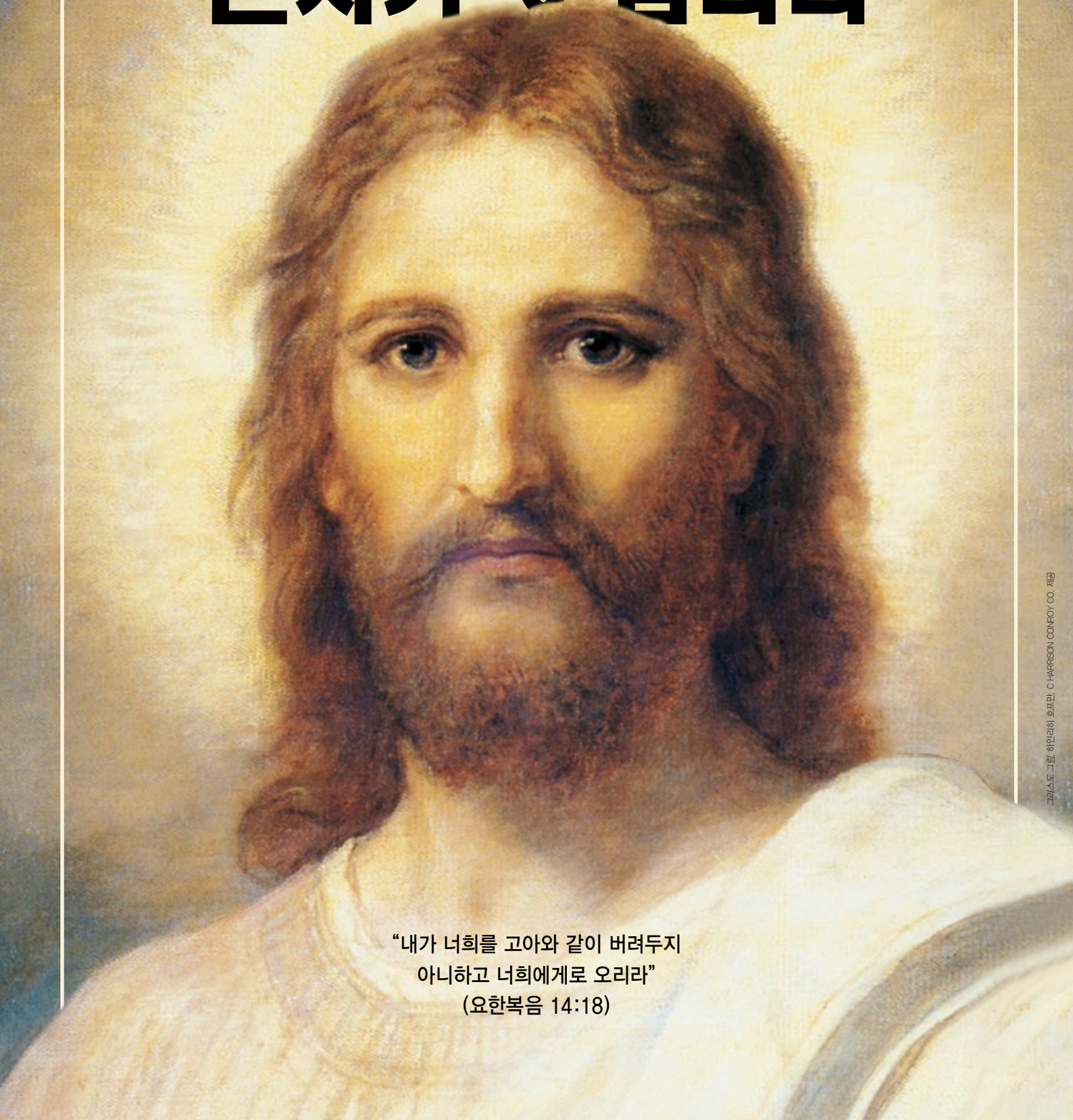
여러분의 의견을 2012년 1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2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주께서 축복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지?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또 다른 신인가?’ 나는 궁금했다.

김 고 웅

나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후, 많은 생존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열네 살 소년 시절에 나 역시 그런 의문을 느꼈다.

정권이 권력에서 물러나자 캄보디아 사람들은 몇몇 종파를 믿기 시작했다. 나는 수도 없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우리 가족은 계속 불교를 믿었지만 나는 내 영혼에서 갈구하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이생이 끝난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루는 숙모님이 학교에서 돌아온 내게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가 숙모 댁으로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다. 숙모는 그들이 캄보디아어를 잘해서 놀라셨다고 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었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지?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또 다른 신인가?’ 나는 궁금했다.

숙모와 나는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말한 것이 참됨을 영을 통해 느꼈다. 선교사들은 물론경을 주면서 그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 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 책이 참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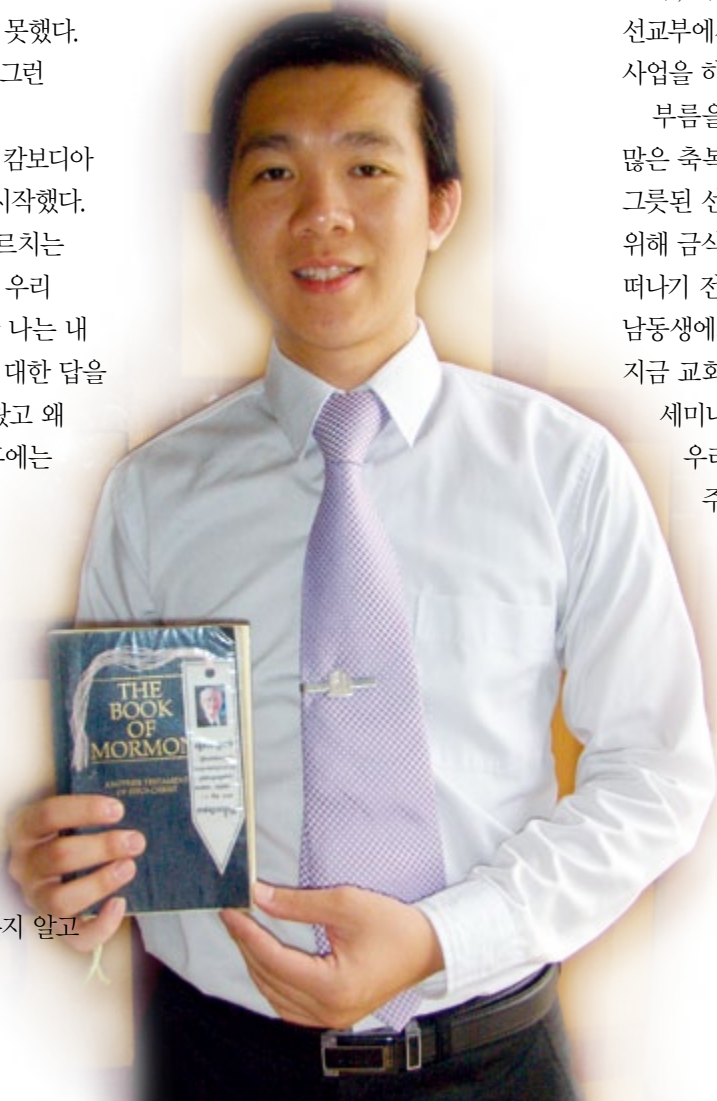
알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론경이 참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숙모와 사촌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 달쯤 후, 모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나는 4년 동안 세미나리 반에, 1년간은 종교 교육원에 참석했고,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다. 열아홉 살이 되자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모님도 좋은 생각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추천서를 작성했다. 한 달 후, 나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선교부에서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에게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당시 남동생은 그릇된 선택에 빠져 있었다. 나는 동생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고,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남동생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동생은 지금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지내며 세미나리에도 참석한다. 이 밖에도 우리 가족은 많은 축복을 받았다.

주님은 선교 사업 기간 동안 내게도 축복을 부어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과 우리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을 아신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 열심히 노력할 때 축복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





칼 비 프랫 장로
칠십인 정원회

확실한 증거

예 동적인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간증을 지니고 성장한 듯합니다. 복음이 참됨을 한 번도 심각하게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느 십대들처럼 가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저는 선교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1961년 2월,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겨울을 뒤로하고 아르헨티나의 한여름 더위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은 언어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교부 회장님은 스페인어 몰몬경 전체를 소리 내어 읽는다면 스페인어가 유창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릴 때 스페인어를

배워서인지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구사하게 되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첫 임지에서 동반자와 저는 한 오래된 가게 뒤에 있는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낮잠 시간 동안에 전도를 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 시간을 오래된 가게 입구에서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가게 앞에서 저는 제가 읽는 그 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몬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번역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는데, 문득 어떤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생애를 통틀어 배운 것들이 모두 참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느낌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느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늘하거나 뜨겁지는 않았으나 확실한 증거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늘 기억했고 그 후로도 수차례 성신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경험 덕분에 저는 성신이 제게 증거하실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았으나 늘 따스하고 안전한 느낌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의 속삭임은 개인적으로 다가오지만 모로나이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모로나아서 10:3~5 참조) 몰몬경에는 우리가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의도로 기도한다면 영이 몰몬경의 참됨을 증거하리라는 모로나이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3쪽.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예언하였던 모든 선지자들-그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많은 적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모사이야서 13:33)

휘트니 힝클리

성 탄절은 선물과 훌륭한 음식,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때로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너무도 길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천 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구주께서 태어나신 날인 첫 번째 성탄절은 구약의 이사야 시대부터 몰몬경에 나오는 레이맨인 사무엘 시대까지 수백 년에 걸쳐 예언되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날 표적들에 대해 알고 고대했으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주께서 탄생하실 때 사람들이 표적을 알아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전파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어 그리스도께서는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신성한 사명을 지니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에 따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담긴 다음 예언들을 읽고 어떻게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다

예언: 예수께서 태어나기 7백 년 전에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있는 곳에서 지구 반 바퀴 떨어진 땅에 살던 엘마 이세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년 전에 마리아가

구주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엘마서 7:10)

성취: 80년 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누가복음 1:27)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예언: 이사야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성취: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이 구주의 성역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누추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누가복음 2:11~12)

베들레헴에서 나시다

예언: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죽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가 5:2)

성취: 7백 년 후, 헤롯은 서기관들에게 새로운 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고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마태복음 2:4~5)

다윗의 씨로

예언: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탄생 6세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예레미야 33:15)

성취: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주님이 고대 다윗 왕의 후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마태복음 1:1, 17)

왕들이 방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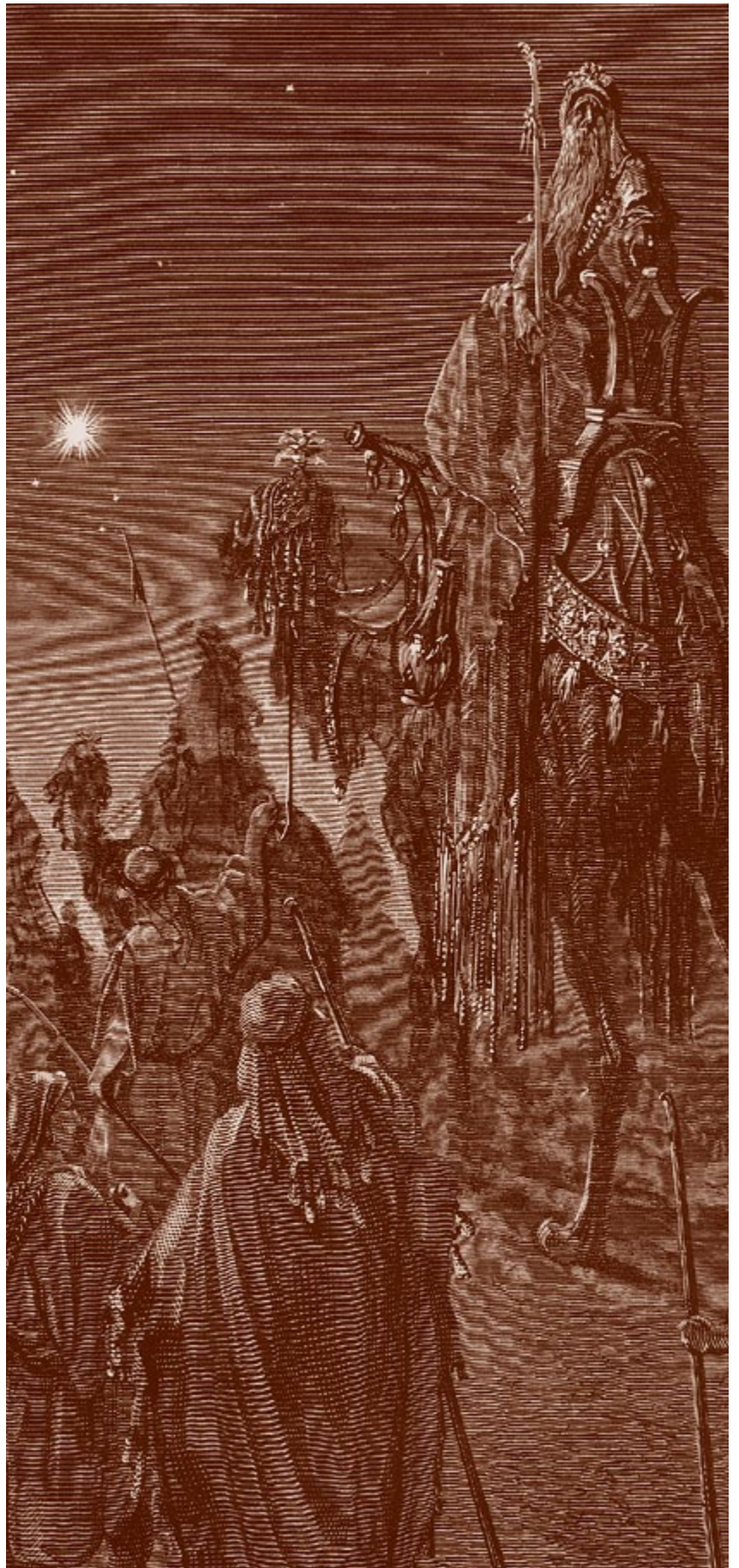
예언: 선지자들은 주님이 누추한 환경에서 탄생하시겠으나 왕들이 그리스도를 보러 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이사야 60:3)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년 전에 레이맨인 사무엘은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을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표적 중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입니다.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로다”(힐라맨서 14:5)

성취: 예언이 성취되기를 고대해 온 동방박사들은 어떤 표적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

미대륙에 사는 니파이인들도 표적을 알아보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또 참으로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더라.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더라.”(제3니파이 1:20~21)

성탄절 선물을 열어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즐거움과 비교해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낼 표적을 기다려 왔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 세계 성도들이 다 같이 그분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러한 표적들을 예비하셨습니다. ■



사려 깊은 선물

동방박사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었을까?

만은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선물에 담긴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이 단순히 유용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넘어서서 선물하는 사람의 사랑 또는 배려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선물은 거기에 담긴 마음을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종류의 선물은 더 큰 뜻을 내포하는 상징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진다. 유용성과 개인적인 가치, 상징적 의미,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려 깊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것이다.

동방박사가 어린 그리스도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보자.(마태복음 2:11 참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이것들을 선물로 가져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지상 부모에게 실질적 가치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황금

실제 용도: 헤롯의 진노를 피하고자 조만간 애굽으로 여행할 경비가 필요한 젊은 부부에게 황금은 귀중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상징하는 의미: 황금은 왕의 신분과 왕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선물이다.(열왕기상 9:14, 28 참조) 그렇기에 더욱이 “만왕의 왕”(디모데전서 6:15)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다.

유향

실제 용도: 유향은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지만 향료나 향수로도 쓰였다.

상징하는 의미: 유향은 유향나무 진에서 나오며 신권 의식, 번제(레위기 2:1 참조), 제사 성임을 위한 기름에 쓰였다. 그러므로 유향은 주님이 지나신 신권과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실 주님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다.(요한복음 1:29 참조)

몰약

실제 용도: 나무껍질에서 나온 쓴 맛이 나는 기름인 몰약 역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었으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의료 용도로 더욱 유용했을 것이다.

상징하는 의미: 신약에서 몰약은 방부 처리와 매장과 관련이 있는데 몰약에는 물질을 보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요한복음 19:39~40 참조) 몰약이 치료에 쓰이는 점은 만인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할 수 있으며, 매장에 쓰이는 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통 받으며 마신 “쓴 잔”을 상징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9:18~19 참조) ■



그들이 변해야 했을까

내가 침례 받을 때 가족들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가족들의 생활
방식이 복음 원리와 상반될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라라 에르난데스

침례 받을 때,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당시 나는 열아홉 살이었는데,
침례를 받아서 기뻐다. 멕시코 베라크루스 파누코
제일 지부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반겨 주셨다. 침례와 더불어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되자마자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참된 교회를 알게 되어 기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새어머니(친어머니는 열두
살 때 돌아가셨다.)와 세 형제는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가족들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나 아버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곧 선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내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데다 먼
곳으로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탐탁지 않아 하셨다.
가족들이 일요일에 부적합해 보이는 텔레비전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금식 주일에 아버지가 점심을 먹자고 하시는
등 가족의 생활 방식이 내가 지키는 원리들과 상반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잘못하는 일이 없으며 가족이
방해한다 해도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를 합리화했다. 나는 변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내 태도와 교만 때문에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졌다. 나는 아버지의 영적 복리에 미치는 내
영향을 간과하며 계속 그렇게 행동했다.

종교 교육원 수업을 위해 공부하던 어느 날, 니파이전서
16장을 읽다가 니파이가 쇠로 된 활을 부러뜨려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된 부분을 읽게 되었다. 늘 그렇듯 레이맨과 레뮤엘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선지자 리하이까지 모두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니파이는 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든 뒤 아버지께
음식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겠느냐고 여쭙었다. 아버지는
기도로써 인도를 구했고 불평한 일에 대해 주님께 질책을
받았다. 리하이는 주님 보시기에 흠족하게 행동했고 가족의
지도자이자 주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다시
충실히 임했다. 니파이는 연약해진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자신이 주님과 대화하고 시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선지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읽고 그에 대한 이해력을 얻자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굴었는지가 떠올랐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보였던 나의 태도가 부끄러웠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일이 특히 마음에 걸렸다.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도 슬펐다.

나는 가족들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연약함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날부터 내 태도와 행동은
서서히 바뀌었다.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항상 존중하려고 애썼다. 금식하는 동안 점심을 먹자고 하시면



내 태도와 행동이 서서히 바뀌었다. 아버지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항상 존중하려고 애썼다.

함께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가족들이 아직은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요일에 보고 듣는 프로그램이나 음악이 더는 언짢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나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며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자랑스럽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다툼이 줄어들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다.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나는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귀환하기 3개월 전, 나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침례 받을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귀환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몰몬경을 공부하고 내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 가족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그 교훈은 내가 교회 회원이 되어 지난 15년 동안 배웠던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이었다. ■



를 형제 조셉 만나다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이 후기에 첫 번째 선지자였다는 점을 알겠지만 조셉이 아주 잘 웃었고 또 즐겨 사람들을 웃겼다는 이야기를 아는가? 또는 조셉과 아내 에머가 쌍둥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는 어떤가?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에 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몇 가지 사실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 조셉 스미스 이세는 1805년 12월 23일에 미국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조셉의 형제자매는 나이 순으로 엘빈, 하이럼, 소프로니아,

새뮤얼 해리슨, 에브라임, 윌리엄, 캐더린, 돈 칼로스, 루시였다.

- 조셉은 일곱 살 때 장티푸스에 걸렸다. 열은 내렸지만 왼쪽 다리가 감염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셉은 마취(진통제)도 하지 않은 채 뼈 아홉 조각을 제거했다. 조셉은 남은 평생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며 걸어야 했다.¹
- 조셉은 열네 살 때 처음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 조셉의 큰형인 엘빈은 조셉이 열일곱 살 때 사망했다. 조셉은 그로부터 거의 13년이 지난 후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에서 엘빈을 보았다.(교리와 성약 137:5~7 참조)
- 에머의 부친인 아이작 헤일은 조셉을 마땅찮게 여겨 결혼을 반대했다. 조셉과 에머는 함께 떠나서 1827년 1월 18일에 결혼했다.²
- 에머와 조셉의 결혼 생활은 17년간 이어졌으며, 열한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 여섯 명은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 조셉은 1832년에 폭도에게 공격을 받아 치아가 깨진 후로 발음이 새는 소리로 말을 했다.³
- 조셉은 여러 가지 놀이를 좋아했다. 그중에는 공놀이, 씨름, 눈싸움, 낚시, 막대 잡아당기기 등이 있다.⁴
- 교회 초기 성도 중 한 사람은 조셉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고 묘사했다.⁵
- 조셉은 강건하고 약 190센티미터나 되는 큰 키였으며, 몸무게는 약 91킬로그램이었다.⁶

- 조셉은 교회 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었다.⁷
- 조셉이 순교한 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테일러(1808~1887) 장로는 조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

주

1. 교회 회장(교회 교육 기구 학생 교재, 2003), 3~4쪽 참조
2. “Life of the Prophet: Joseph and Emma,” JosephSmith.net 참조
3. “Life of the Prophet: Friend of Man,” JosephSmith.net 참조
4. Alexander L. Baugh,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Joseph Smith: The Prophet, the Man*, ed. Susan Easton Black and Charles D. Tate Jr.(1993), 137쪽 참조
5. Joseph L. Robinson, “Life of the Prophet: Teacher of God’s Truth,” JosephSmith.net
6. Baugh,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138~139쪽 참조
7. “Life of the Prophet: Leading with Love,” JosephSmith.net 참조





구주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구주를 따르는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며,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상화: 스티브 크롬;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 그림의 부분 확대, 워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그런 말들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실화에 근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레위기 19:12)

셸 비는 나쁜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이 주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셸비는 이따금 친구들에게 “내 옆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 줘.”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잘 잊어버려서 셸비는 반복해서 그
말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셸비의 친구 베스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잊어버렸네. 셸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를 자기처럼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나 봐.”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셸비는 당황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항상 말해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셸비는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고, 셸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넌 계속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언젠가는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될 거야.”

그러나 셸비는 “왜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항상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상태를 합당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신단다.
나쁜 말이 있는 곳에는 영이 거할 수 없거든.”

셸비는 영을 느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가정의 밤, 간증을 나눌 때,
아빠에게서 축복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셸비는 그때 그 느낌이 좋았고,
그런 따뜻하고 평화로운 위안을 잃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계속 모범이 되고, 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지 친구들에게 잘 알려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쉬비는 그런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쉬비는 베카에게 “내 옆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 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베카는 쉬비를 쏘아보고는 무시했습니다. 쉬비는 중요한 말을 해서 기뻐지만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쉬는 시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베스였습니다.

쉬비는 “내 옆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 줄래?” 하고 말했습니다.

베스는 “미안해.” 하며 눈을 굴렸습니다.

쉬비는 또다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쉬비는 방과 후 소프트볼 연습에서 공을 쳤습니다. 공은 일루 쪽으로 날아가서 쉬비보다 먼저 1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소프트볼팀에 새로 들어온 보니가 주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쉬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일에 지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쉬비 옆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쉬비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베스가 쉬비는 후기 성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또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니에게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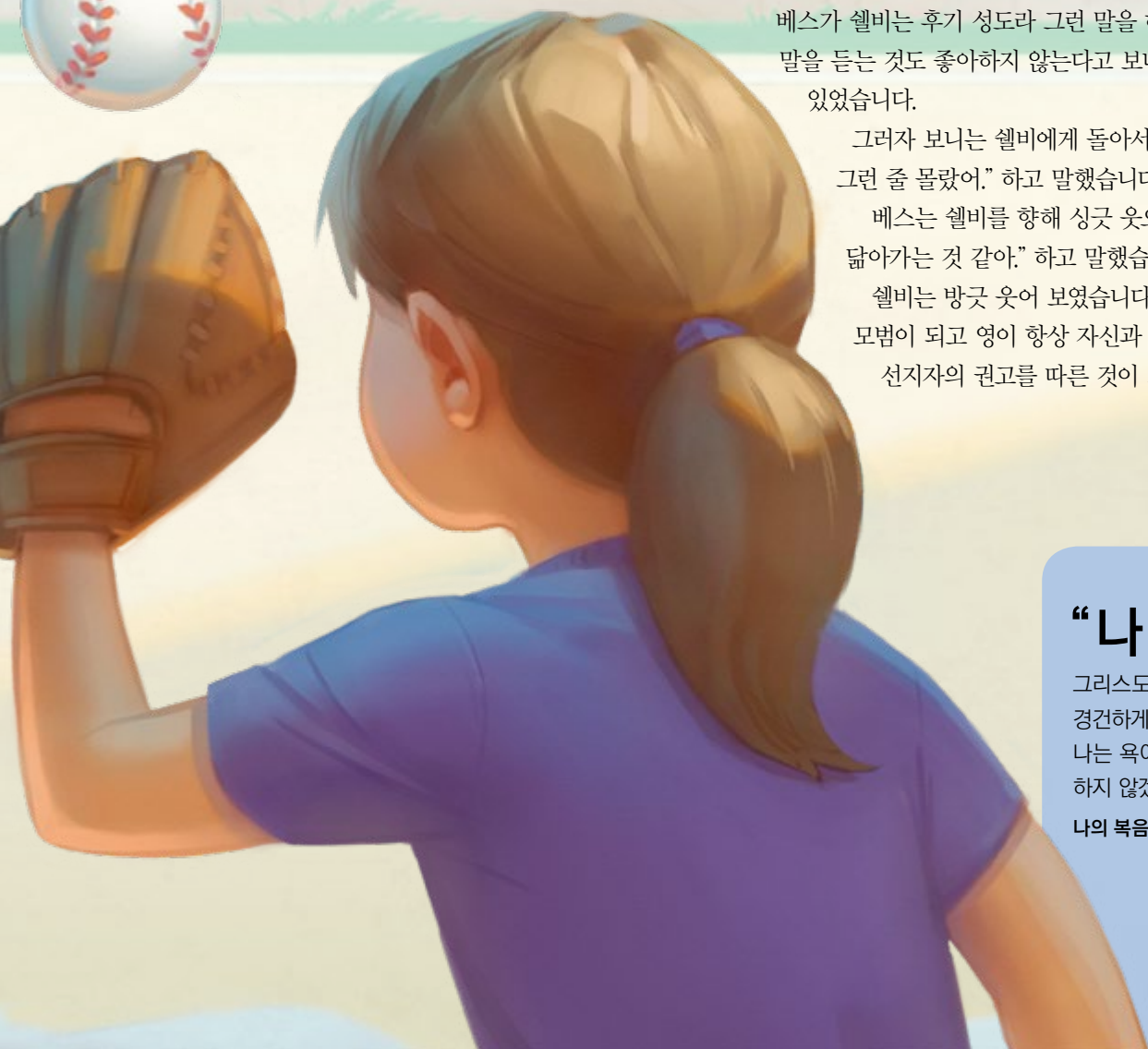
그러자 보니는 쉬비에게 돌아서서 “미안해, 쉬비. 그런 줄 몰랐어.” 하고 말했습니다.

베스는 쉬비를 향해 싱긋 웃으며 “우리 모두 너를 닮아가는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쉬비는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영이 항상 자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권고를 따른 것이 기뻐했습니다. ■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우리들 이야기



앤지 디, 11세, 페루



아리아나 에이, 9세, 브라질



예수님의 탄생, 앤젤레스 알, 10세, 볼리비아



레베카 에이, 7세, 베네수엘라

저는 어느 성탄절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전도용 카드 몇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월이 되자 카드를 받으신 선생님 한 분이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탄절 DVD를 받아서 보았는데 정말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용 카드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나눠 줄 때 영을 느낍니다. 저는 복음을 나눌 때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이아네 알, 11세, 브라질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또는 경험을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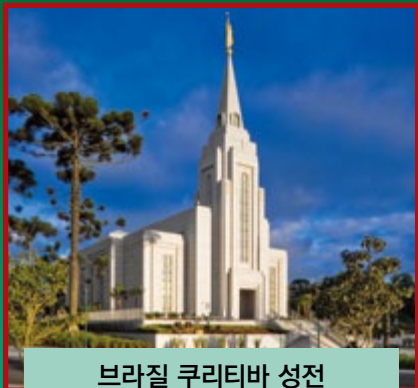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3세에서 12세 사이여야 함),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 그리고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출물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성전 카드

성전 카드를 만들려면, 이 종이를 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카드를 잘라 냅니다. 이 카드들을 2003년 매월 호와 2005년 4월호, 2007년 9월호에 나온 성전 카드와 함께 사용하세요. 카드를 더 인쇄하고 싶다면 liahona.lds.org에 접속해 보세요.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2008년 2월 10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
2008년 6월 1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2008년 8월 10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
2008년 8월 24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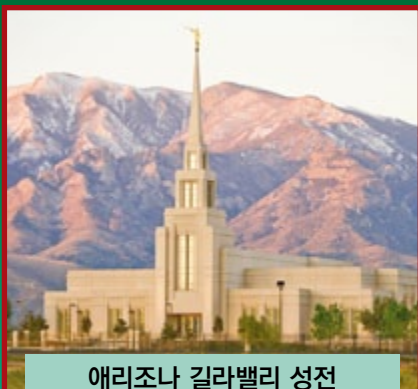
유타 드레이퍼 성전
2009년 3월 20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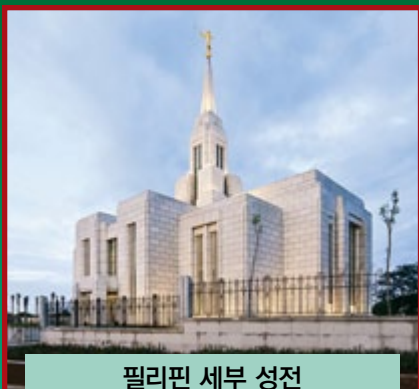
유타 오키르마운틴 성전
2009년 8월 21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브리티시콜롬비아 밴쿠버 성전
2010년 5월 2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애리조나 길라밸리 성전
2010년 5월 23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필리핀 세부 성전
2010년 6월 13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

사진 촬영: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데이비드 디 울프;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 존 루크;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브리타니시콜롬비아 밴쿠버 성전, 필리핀 세부 성전, 매튜 라이어 © FR; 아이다호 트윈폴스 성전, 인드레아 나델스 © FR; 유타 드레이퍼 성전, 크리스티나 스미스 © FR; 유타 오키르마운틴 성전, 도널드 메이저스; 애리조나 길라밸리 성전, 존 루크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경전은 구주의 탄생과 재림을 가르쳐 줍니다

제니퍼 매디
교회 잡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태복음 16:27)

수 천 년 동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며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시현으로 보았고 예수께서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행하실 기적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구주께서 태어나시기 몇 년 전, 성벽 위에 올라 니파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표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태어나실 때에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아기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새로운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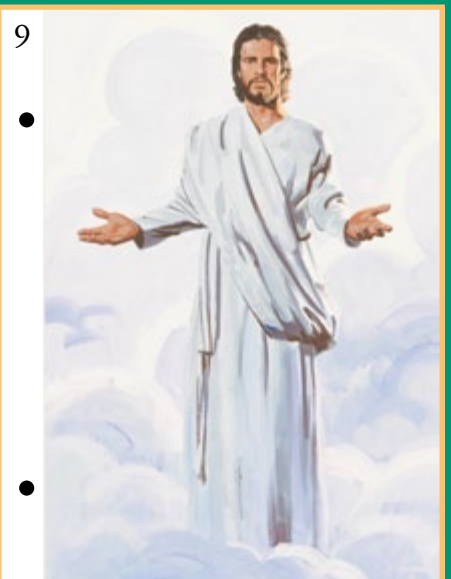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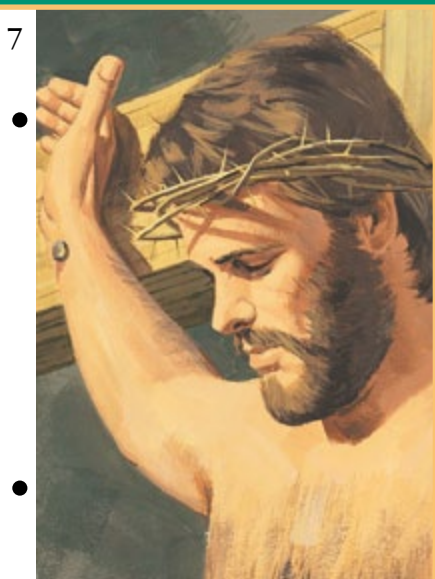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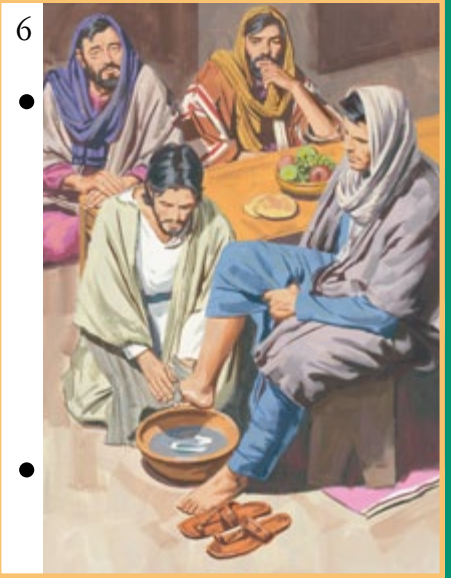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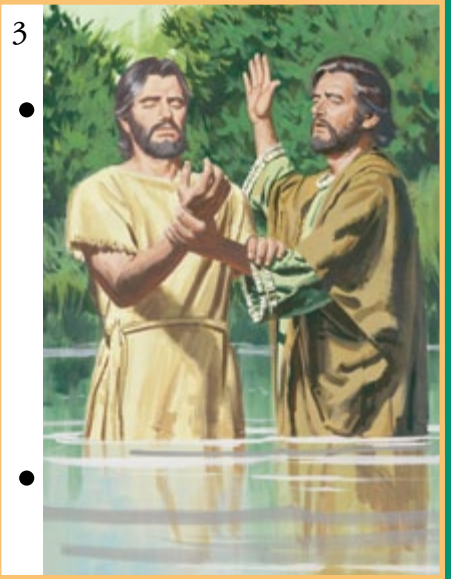
경전에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몰몬경에서 모로나이는 구주의 재림에 관해 증거합니다. 구약에서는 말라기가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 말합니다.

경전에는 역사상 여러 다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한 선지자들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상에 거하시고자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그림책을 만들어 보세요. 65쪽에 있는 그림을 오려 내어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고 순서대로 겹쳐 보세요. 그런 후 끈을 구멍에 끼워서 묶어 주세요. 가정의 밤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 책을 보거나 구주의 일생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





성탄절 트리

해리어트 알 우흐트도르프

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에게는 음식이나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바로 몇 주 전,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비록 어렸지만 부모님이 생계 때문에 애쓰시는 것을 잘 알았기에 생일 선물이나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큰 도시에서 굶주림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슬프고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놀랍고 기쁘게도 저를 위한 멋진 선물이 부엌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Weihnachtsbaum, 즉 성탄절 트리였습니다.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그

트리에는 은종이로 손수 만든 정교한 장식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은종이는 우리 집 거실 불빛이 비쳐 매우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은종이 장식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설탕으로 만든 조그마한 카라멜이 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상록수와 은종이와 귀한 설탕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그 귀중한 물건 중 어느 것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셨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소망, 사랑, 그리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 무렵이 되면 저희 집에는 늘 성탄절 트리가 놓입니다. 이제는 전깃불과 온갖 다양한 장식물로 장식된 트리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함께 있노라면 아름다운 트리와 반짝이는 불빛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감미로운 추억에 젖어 듭니다. 빛나는 은종이 장식물이 있던 작은 트리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을 느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

해리어트 알 우흐트도르프는 재일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부인이다.

출처: 타이머 모블리

손으로 만드는 장식물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장식물 몇 가지를 만들어 가족들을 놀라게 해 보세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탄절 장식물 모양 쿠키 커터 또는 작은 물컵
- 카드용 종이나 포스터지 같은 두꺼운 종이
- 연필
- 가위
- 알루미늄 포일(선택 사항)
- 흰색 접착제
- 매직펜(또는 크레용이나 색연필)
- 실, 리본, 또는 끈

1. 쿠키 커터 또는 물컵을 두꺼운 종이 위에 대고 모양을 따라 그린다.
2.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모양을 오려 낸다.
3. 포일을 조금 뜯어서 잘라낸 종이를 둘러싼다. 포일 끝 부분을 장식물 뒷면에 접착제로 붙인다.(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나머지 단계를 따라 한다.)
4. 장식물 앞쪽에 접착제를 발라 선을 만든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가만히 둔다.
5. 매직펜으로 접착제 선 사이를 색칠한다.(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6.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식물 맨 위쪽을 찢어 구멍을 낸다. 약간의 실, 리본, 또는 끈을 구멍에 넣어 위를 묶는다.
7. 여러분이 만든 장식물을 가족의 Weihnachtsbaum(성탄절 트리)에 걸어 두거나 선물로 준다.





나의 선교사 기금

스펜서 에스

조 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어머니께서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 후에 빈 우유 깡통에 구멍을 뚫고 '선교사 기금'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셨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나와 가족들은 나의 선교 사업 기금을 저축해 왔다.

선교사 기금을 모으는 일에 가족 모두가 참여했다. 내가 태어난 후, 친척들은 집에 오실 때면 필리핀 페소를 선교사 기금 깡통에 넣어 주셨다. 성탄절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은 선교사 기금에 보태라며 돈을 주셨다.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가 학교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얼마씩 주시기도 했다. 그런 선물들도 선교사 기금이 되었던 것이다. 한번은 메달을 몇 개 탄 적이 있는데, 이모님이 메달 개수를 세어

보시더니 메달 한 개마다 얼마씩 값을 쳐서 돈을 주셨다. 십일조를 낸 후 남은 돈은 선교사 기금 통으로 들어갔다.

침례를 받자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열망이 더 커졌다. 가족들은 내 선교사 기금 전액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동생들이 생겼고, 우리가 모으는 돈은 동생들의 선교사 기금으로도 쓰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홉 살이고 선교사가 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나이를 먹어야 한다.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은 내 선교사 기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다는 것 때문이라도 더 커졌다.

나는 선교 사업을 위해 계속 저축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선교사로 그분께 봉사하게 될 것임을 나는 안다.



신앙개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4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7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8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물문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조셉 스미스

색다른 성탄절 트리

엘리아나 오스본

실화에 근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29)

1. 카를로스는 성탄절이 되어 신이 났습니다. 올해에는 카를로스의 집에 색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반짝이는 초록색 종이로 만든 커다란 트리를 문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조금 색다른 일을 할 거란다.



2. 카를로스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동생 아라셀리와 남동생 디에고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 카를로스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라셀리는 장식품 쪽으로 달려가 빨간색 색연필을 쥐었습니다.



5. 제법인데?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써도 될까요?

딱
어웁리는 말인걸. 너희 둘
다 정말 대단하구나!



6. 아라셀리와 카를로스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장식물을
하나씩 만들어서 트리에 붙였습니다. 디에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형과 누나를 도왔습니다.



7. 예수님에 관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경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8. 성탄절 전날, 온 가족은 노래를 부르고 직접
장식물에 써서 트리에 붙여 둔 글을 읽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예수님에 관해 그토록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연극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두 그림 사이에 서로 다른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색칠하기



성탄절 이야기



부모를 위한 제언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아이들이 두 그림에 그려진 사건들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색칠할 시간을 주세요.

교회 소식

신앙을 행사하여 축복 받은 새로운 선교부 회장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잡지

지난 6월, 새로운 선교부 회장 128명과 그 아내들은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모여 훈련을 받았다.

세미나는 2011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이어졌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모임을 개회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 중에서 선택된 분들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된 주님의 밭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 여러분이 부름 받은 선교부만큼 향기롭고 풍성한 장미를 피워낼 곳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전 세계 18개 언어권에서 봉사할 선교부 회장 부부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22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출신 배경은 그토록 다양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존재한다.

새로운 선교부 회장 부부들은 현재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으며, 신앙을 행사할 때 어떤 축복이 돌아오는지를 그때마다 거의 곧바로 인식해왔다.

희생

선교부 회장 부름은 커다란 도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신나는 3년을 보내는 임무이기도 하다. 이 부름에 헌신하기 위해 많은 부부들은 반드시 직장이나 가족 등 오래 지속해 온 개인 생활을 접어 두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종종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는 선교부 회장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선교부 회장 부부들은 대개 그 생활비에 개인 돈을 보태어 쓸 만한 경제력이 있다.

마크스 마틴스와 그의 아내 미리언이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무렵,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미국 하와이 라이에 성도들에게 희생은 필요하겠지만 그 희생이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마틴스 부부는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알고자 기도를 드렸다. 이 부부는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 마틴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축복이었죠.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모든 선교부 회장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희생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각자 희생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시험 받는다.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사는 게리 라스무센과 파멜라 라스무센은 일본 센다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 들었다. 이는 이 부부에게 여섯 자녀와 스물세 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희생을 의미했다.

라스무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히 보살피 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런 기회를 얻어 행복합니다. 이 봉사는 아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부 회장과 그 동반자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임으로써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다.

마틴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때로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힘겨운 일을 누군가는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 주님을 우선에 두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어디라도 가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특권이며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준비를 마친다

선교 임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교부 회장과 그의 아내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준비를 한다. 선교부 회장은 보통 6개월 전에 부름을 받지만 때로는 준비 기간이 짧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유타주 에덴에 사는 브렌트 스코트와 앤 스코트는 선교부 회장 세미나가 있기 일주일 전에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봉사를 준비할 시간은 단 두 달뿐이었다.

스코트 부부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고 집을 정리하며 바쁘게 지내면서도 지침서를 공부하고 CD를 듣는 등 여러 방법으로 영적인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는 데 가장 커다란 계기가 된 일은 바로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세미나였다고 한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지식으로의 영적 몰입 그 자체입니다.” 스코트 회장은 말했다. “[주께 봉사하기 위해 희생해 온] 분들과 함께 하며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게서 배우는 일은 …… 저희 생애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지혜를 배우다

6월에 나흘에 걸쳐 열린 세미나에서 선교부 회장 부부들은 제일회장단과 몇몇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강화되었다.

스코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업은 주님의 일이며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구주를 대표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임지로 떠날 선교부 회장들과 동반자들을 위해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힘을 활용하고, 의식에 집중하며, 주님과 교회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살펴야 하는 귀중한 선교사들과 하나가 되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선교부 회장들은 임지로 떠나기 전에 나흘에 걸쳐서 미국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훈련 세미나에 참가했다.

선교 임지에서 빛을 발하는 일곱 자매들

일곱 자매 별자리라고도 불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별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350년이 걸린다.

이십 대 초반부터 삼십 대 후반에 이르는 다음 자매들은 5개국에서 복음을 나누며 가족들에게 그리고 선교 임지에 빛을 전하고 있다.

마리솔(칠레 오소르노), 안토니아(아르헨티나 레시스텐시아), 다니엘라(코스타리카 산호세), 플로렌시아(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베로니카(칠레 산티아고 이스트), 아나아(과테말라 시티 노스), 발비나 나바 아겔라(아르헨티나 바이아 블랑카)는 현재 여러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 자매들이 후기 성도 선교사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지역 예배당에서

열리는 무료 영어반이었다. 2006년에 자매들은 그들의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 자매들의 부모님인 알비노 나바와 이시드라 아겔라는 30년 전에 침례를 받았으며, 자녀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다시 활동 회원이 되었다.

아겔라 자매는 일곱 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축복을 실감하고 있다.

“딸들은 [주께] 더 많은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 그분의 손 안에서 일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플로렌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사업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복음은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자매들은 2011년 연말부터 한 명씩 귀환할 것이다. ■

총관리 역원은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한다. news.lds.org에서는 그런 총관리 역원들의 성역에 관한 기사를 그리고 prophets.lds.org에서는 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Prophets and Apostles Speak Today)을 볼 수 있다. 웹사이트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하다. 총관리 역원에 관한 최근 소식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 2011년 5월 26일,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목적으로 세워진 초당적인 조직인 로스엔젤레스 국제 문제 협의회(Los Angeles World Affairs Council)에 참석하여 지역 사회와 재계, 종교계 지도자 800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1830년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교회의 성장을 주제로 말씀했다. news.lds.org에서 “Uchtdorf, Los Angeles”를 검색해 본다.

- 2011년 6월 5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모스크바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는 첫 번째, 구 소련 연방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두 번째로 조직되는 스테이크이다. 모임에는 1,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news.lds.org에서 “Nelson, Moscow”를 검색해 본다.

- 5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인도와 홍콩(이곳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와 합류), 몽골을 방문했다. news.lds.org에서 “Holland, India”를 검색해 본다.

- 2011년 6월 15일,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관리 감독은 일본 히가시마츠시마를 방문했다. 3월 11일에 지진과 쓰나미를 겪은 일본의 상황을 살피고 교회 구호 사업 진행을 확인했다. news.lds.org에서 “Burton, Japan”을 검색해 본다. ■



멕시코 시티에서 온 일곱 자매들은 같은 시기에 전임 선교사로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예루살렘 영화 세트장을 헌납하다

복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교회에서 건립한 예루살렘 영화 세트장이 헌납되어 촬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촬영되고 있는 첫 작품은 신약전서 총서 프로젝트(New Testament Scripture Library Project)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장면들을 짚막하게 담게 된다.

세트장은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건물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프로보 고센에 있는 후기 성도 모션 픽처 스튜디오에 위치해 있다. 세트장은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한 곳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장소들을 재현한 곳이다.

고센이라는 작은 마을이 부지로 선정된 것은 완만한 구릉과 평지, 삼나무 숲, 모래 언덕, 개울 등 주변 환경이 예루살렘 지형과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인근에 있는 유타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대신하게 된다.

세트장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보완할 것이다. ■

연로한 선교사에 관한 정책 변경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더 많은 부부가 전임



유타 주 고센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 세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장면들을 신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찍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선교 사업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로한 선교사의 봉사 기간과 주거에 관한 정책 변경을 최근 승인했다.

2011년 9월 1일부터 부부 선교사들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3개월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달 주거 비용으로 1,4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책정되었다. 식비와 다른 개인 경비는 계속 부부 선교사가 부담한다.

과거에는 거주 국가 외 지역에서 봉사하게 되는 부부의 경우 최소 18개월 동안 부름을 받는 것이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임지로 오가는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거주 국가 이외 지역에서 18개월 이하 기간 동안 봉사할 수 있다.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seniormissionaryservices@ldschurch.org 로 문의한다. ■

더 많은 언어로 교회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게 되다

LDS.org에서 이용 가능한 언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교회 공식 웹사이트 색인 페이지에는 48개 언어가 새로 추가되었다. LDS.org 모든 화면에서 상단 우측에 있는 “언어(languages)”에서 언어 링크를 클릭하면, 방문자는 현재 온라인 상에 그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교회 자료 링크를 볼 수 있다.

LDS.org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10~15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언어의 언어 페이지는 없어지게 된다.(예를 들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는 언어 페이지가 없다. 이 언어로 된 자료들이 LDS.org에 이미 많기 때문이다.)

교회 직원들은 또한 LDS.org에서 잡지와 기타 번역된 자료들을 휴대기기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케트살테낭고 성전 일반 공개 및 헌납 일정 발표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헌납을 기념하여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 청소년들이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에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을 펼친다.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에는 성전 헌납식이 세 차례에 걸쳐 열릴 것이며 이 모임은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단위 조직으로 방송될 것이다.

헌납 후, 성전은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부터 의식이 진행된다.

교회가 프랑스에 성전 건립을 희망하다

지난 7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파리 외곽에 프랑스 첫 번째 성전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교회는 현지 담당자들과 여러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프랑스 성전을 건립할 적당한 부지를 찾으려는 시도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왔다. 성전에 방문하려는 프랑스 교회 회원들은 대개 이웃 유럽 국가로 여행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로 오디오 경전을 더 쉽게 이용하게 되다

교회는 후기 성도 표준 경전 오디오 버전을 출시하여 아이튠즈(iTunes)에서 오디오북(아이튠즈에서는 “항상된 오디오 콘텐츠”라 부른다.)이나 MP3로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표준 경전 오디오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하며 물론경 합본 오디오는 한국어와 일본어, 포르투갈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자료들을 접하려면 iTunes.Lds.org 에서 교회 채널의 경전 부문을 찾아 본다. ■

표준 경전 오디오 버전은 현재 iTunes.Lds.org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감사로 가득 찬 나의 마음

매달 잡지가 도착하고서 가장 먼저 펼쳐는 부분은 바로 후기 성도의 소리입니다. 그때도 언제나처럼 후기 성도의 소리를 펼치고는 “여러분이 바로 천사였어요”(리아호나, 2010년 12월호, 38쪽)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저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느꼈고, 우리 구주의 사명과 그분의 이름으로 사심 없이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훌륭한 경험을 나눠준 하이다 윈디쉬 페르난데즈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래리 디 캠프, 미국 서부 버지니아

리아호나가 가져오는 변화

리아호나에 실린 가르침은 언제나 제가 아버지, 남편,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린 말씀은 저희 집에 특별한 영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언제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저와 아내, 아이들 각자가 따로 볼 수 있을 만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며 보는 대신 각자가 원할 때 바로 읽고 좋아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 잡지를 철해 놓고 남은 리아호나는 저활동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줍니다. 리아호나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파비오 알레그레티 쿠퍼, 브라질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독신으로서 봉사하며**”, 12쪽: 버데트 자매 이야기를 읽은 후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받는 축복들에 관해 토론해 본다. 가족들에게 부름에서 봉사하며 경험한 의미 있는 일들을 들려 달라고 부탁한다.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앞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18쪽: 구주를 위해 내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족에게 물어본다. “주께 드리는 선물”이란 마지막 내용을 읽는다. 넬슨 장로는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엎드려 절하세**”, 42쪽: 가르치기에 앞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다. 목자들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면 “절대로 속삭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몬슨 회장의 권고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론해도 좋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귓속말로 지령을 준 후에 그대로 따라 하게 해본다.

“**조셉 형제를 만나다**”, 58쪽: 조셉 스미스 사진을 전시하고, 기사에 실린 그에 관한 사실들을 읽어 준다. 그런 후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는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들**”, 60쪽: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읽은 후에 만일 주변 사람이 나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 줄 것인지 함께 토론한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한다.(또한 교리와 성약 63:60~64 참조) ■



개종 이야기와 영을 나누며

청년 독신 와드에 다니던 시절, 저희 와드는 함께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한번은 전임 선교사들이 모임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그 가정의 밤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여러 개종자들을 초대해 개종 이야기를 들려 주게 했습니다. 개종자들이 이야기할 때 영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개종자들이 모두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전임 선교사로서, 그리고 회원으로서 제가

선교 사업을 도우며 겪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보았고, 그 후 여러 주 동안 날마다 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후 와드에서 가정의 밤을 맡아 운영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개종 이야기의 밤”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나가기로 했으며, 와드 내 다른 개종자들에게도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

제나 맥퍼슨, 미국, 캘리포니아

세상의 빛

제프 에스 맥킨토시

나는 여러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양복에 어울리는 셔츠와 넥타이를 잘 고르게 되었다.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 내고 내가 고른 물건에 만족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한 가게에서는 양복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 진열되었고, 셔츠와 넥타이는 백열 전구가 켜진 다른 구역에 전시되었다. 그렇게 불빛이 달라서 나는 꽤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손님이 양복 한두 벌을 고르고, 내가 셔츠와 넥타이 진열대로 가서 잘 어울리는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 와야 할 때 더 그랬다. 셔츠와 넥타이를 골라 양복 옆에 두고 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새로운 불빛 아래서 색상이 ‘바뀌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양복을 셔츠와 넥타이가 진열된 곳으로 가져가는 편이 더 낫긴 했다. 그렇지만 이 방법도 손님에게 가끔 혼란을 일으켰는데, 양복 색상이 방금 전 고른 색과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는 황록색이던 양복이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는 회색이나 회갈색, 혹은 갈색처럼 보였다. 검정색과 짙은 회색, 짙은 남색 양복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손님이 고른 물건을 햇빛 아래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문 가까이로 데려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햇빛 아래에서 진짜 색상을



우리는 빛을 통해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금세 구분해 냈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백화점 밖 세상에서도 매일 선택에 직면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그 선택이 사람의 교훈으로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유혹에 흐려진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때로는 옳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한다.

나의 해결 방안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즉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이러한 선택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니파이전서 17:13)

우리가 참된 빛으로 선택하려 노력한다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신의 인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분할 것이다.(모로나이서 7: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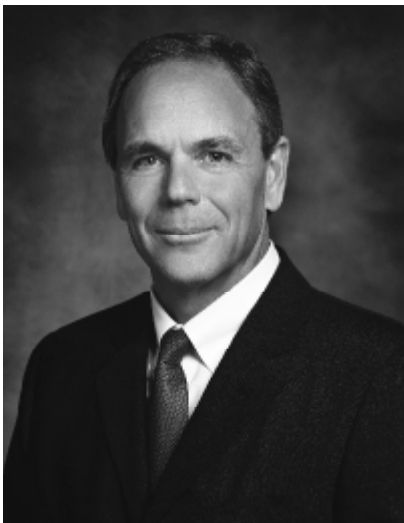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의 구주를 따르겠다고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



지역 소식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지난 8월부터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링우드 장로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서울 서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이 매우 깊다. 한국에 대한 사랑 또한 남다르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 받고는 한국에 자주 갈 수 있게 되어서 기뻐했다는 링우드 장로가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왔다. 그의 인사와 간증을 소개한다.



저와 링우드 자매, 막내 아들 스펜서는 북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부름이 주는 진정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걸모습은 미국인 같을지 모르지만 저희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덕분에 저희의 삶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충실성과 근면성에 끊임없이 경외심을 느낍니다. 한국 서울 선교부에 어린 선교사로 왔을 때를 시작으로 저는 훌륭한 한국 지도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분들은 지금도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상, 이호남, 박재암, 허재, 김차봉, 홍병식, 조규영, 진종철, 최옥환, 박병규, 홍무광 형제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이 어린 선교사였던 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결코 그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제 삶에 끼쳤던 영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제가 만났던 다른 많은 한국인들 모두 제 영웅입니다.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삶에 선한 영향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제

아이들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 때 두 분의 훌륭한 선교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유진 피 털 회장님이 귀환하셨고, 에프 레이 호킨스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호킨스 회장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 역사와 그분이 목격하셨던 기적과 위대한 개척자들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때가 특히 더 좋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마치 제가 한국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인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초기 한국 성도들의 훌륭한 역사, 그리고 신앙과 근면함에 걸맞은 그러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개척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척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길을 보여 주며 먼저 앞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자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더 많은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개척자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자녀들과 손자손녀에게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선교 사업과 성전으로 인도해 줄 개척자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부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주는 최고의 개척자입니다. 그분은 또한 선한 목자로 알려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히브리서 13:20)로 불립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베드로전서 2:25) 및 목자장(베드로전서 5:4)으로 일컬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개척자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양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서양에서는 양치기가 주로 목자의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양치기는 앞에서 양들을 이끌기보다는 뒤에서 양들을 모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님이 목자와 양치기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서쪽 산 계곡에서 양을 모는 양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양치기는 대체로 양들 뒤에서, 말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섯 마리 정도의 작은 개들이 양들 뒤에서 요란하게 짖어대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양치기입니다.

몇 달 전 독일 뮌헨에서 진짜 목자를 봤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떼 앞에서 노래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왼쪽으로 돌면 양들도 왼쪽으로 돌고, 그가 오른쪽으로 가면 양들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양들 바로 뒤에서 짖어대는 개도 없었습니다. 양들은 진정 자기들의 목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완전에 이르는 길, 93쪽)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우리가 “큰 목자”이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초기 한국의 개척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계속 노력하여 구주처럼 되기를, 그리고 뒤따라 올 많은 사람들에게 개척자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요한복음 10:3~4)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척자와 목자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친숙한 목소리를 듣고 뒤따라 올 것입니다. ■

링우드 장로

마이클 텔리 링우드 장로는 1958년 2월 14일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태어났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성장했으며, 1983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2년 12월 27일에 유타 조던리버 성전에서 로사리에 넬슨과 결혼했다. 링우드 장로는 감독, 고등 평의원, 대제사 그룹지도자, 청남 회장, 스테이크 회장 및 한국 서울 서 선교부 회장 등의 부름을 수행했다.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다.



서울 서 선교부 회장 시절의 링우드 장로와 링우드 자매.



다시 기본으로

고원용 형제 귀환 노년의 모임

고 원용 형제가 귀환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은 지 6년 반만이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2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필리핀 지역 회장단으로 필리핀에서 보냈다.

2011년 10월 30일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열린 '고원용 형제 귀환 노년의 모임'에는 여러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지역 칠십인인 김창호 장로는 고원용 장로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뿐만 아니라 지역 칠십인과 그 외 여러 부름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고원용 장로에게 한국의 성도들이 전하는 작은 선물이었다.

모임은 김은희 자매와 고원용 형제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김은희 자매는 총관리역원의 아내로서받은 축복이 세 가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늘 남편과 같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여러 나라에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이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김 자매는 선교사와 복음토론을 할 때부터 뿔기세탁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겠다는 소망을 가짐으로써 남편을 만났고,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영생으로 이르는 길은 어렵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고원용 형제는 부름을 시작하면서 세 분의 선지자를 모범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첫째는 사도 바울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검손과 눈물”로 “밤낮 쉬지않고” 봉사하신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였고, 두번째는

엘마처럼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지고”(엘마 13:27) 성도들에게 권고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야곱처럼 “백성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려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고 형제가 빔프로젝터와 태블릿을 이용해 보여준 사진 속 필리핀 회원들의 모습은 그 옛날 우리나라의 6, 70년대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고원용 형제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교회가 발전해 나간 모습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교회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17개의 선교부와 81개의 스테이크, 그리고 85개의 지방부에 65만 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원용 형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40여 년 전 한국도 지금의 필리핀처럼 선교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잃어버린 회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진정한 개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 성전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이 서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 봉사하면서 성약의 백성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원용 형제는 마지막에 자신을

‘장로’가 아닌 ‘형제’로 불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복음의 원리 중 하나인 엘마서 1장 26절에 나오는 평신도 교회의 원리를 좋아합니다. 이제 부름에서 해임된 저는 평신도로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부름을 받은 지도자를 지지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임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간증을 더했다.

“칠십인은 교리와 성약 107편 2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제가 증인이 되었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축복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분을 더 감동시키고(제3니파이 17장), 그분을 더 놀라게 만들고(마태 8장), 그분을 늘 미소짓게 만들고(제3니파이 19장), 그리하여 그분이 축복을 주시며(교리와 성약 82편 10절), 그분이 친구라고 부르는(교리와 성약 84편 77절)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자주 성전을 방문하여 그분을 느끼는 백성이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형제로서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한국어판 몰몬경, 희생과 노력의 결실 ②

이 인순 형제의 그 공책 덕분에 교정 위원회는 적절한 한글 단어를 찾는 데 드는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손으로 쓴 원고를 인쇄하고 인쇄초본을 교정하고, 다시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인쇄했다. 교정 위원회는 이 과정을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오류를 없애려 무척 애썼다. 위원들은 일년의 대부분을 하루에 열 시간씩 교정을 보고 색인과 상호참조를 추가하는 데 바쳤다.¹ 그들은 제3니파이(당시 니파이삼서)를 소책자 형태로 먼저 출판하라는 지시를 받고, 1962년 3월에 제3니파이를 한국어로 2천 부 출판했다. 선교사들은 처음으로 후기 성도 경전을 갖고 가르칠 수 있었으며, 복음을 가르칠 때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글레이드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1960년 4월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일본어 몰몬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몰몬경이 아직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2년 3월, 선교 본부에 들렀을 때 물건 한 꾸러미가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제3니파이 여섯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몰몬경을 부분적으로나마 갖게 되어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²

1961년 5월에 한국 지방부 회장이 되었고, 그 후 몇 달 뒤인 1961년 7월에는 앤드러스 북극동 선교부

회장의 보좌로 지리받았던 린 와델 장로는 1962년 3월 3일에서 6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 가졌던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힝클리 장로님은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어로 된 몰몬경을 인쇄하는 일에 대해 그분과 장시간 상의했습니다. 몰몬경의 번역은 이미 몇 달 전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힝클리 장로의 지시에 따라 브루스 그랜트 장로, 이인순 형제와 저는 11월 1일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몰몬경 교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반구 백성들에게 구주께서 주신 말씀을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3니파이를 먼저 출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그 부분의 교정 작업이 완료되어 그 당시 인쇄 과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판으로 찍은 2,000여 부 이상의 제3니파이가 1962년 3월 8일에 선교부 사무실에 배달되었습니다. 힝클리 회장이 1962년 3월 6일에 한국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준 마지막 지침은 이러했습니다. ‘와델 장로님, 귀환하기 전에 몰몬경을 인쇄할 준비를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 지침에 따라 그랜트 장로와 이 형제, 저는 마음이 더 급해져서 교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번역 내용과 철자, 상호 참조, 그 밖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점검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인쇄소로 원고를 보냈고, 인쇄된 초고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서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1962년 5월 23일까지 이런 절차를 다섯 번이나 거쳤고 힝클리 장로님이 요청한대로 인쇄 준비가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책을 교정본다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할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일에 성신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임되어 귀환하기 전에 최종 인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³

1962년 7월에 북극동 선교부는 북극동 선교부(훗날 일본 선교부로 개명)와 한국 선교부로 분리되었다. 제일 이 카 회장이 한국에서 18명의 선교사와 다섯 지부와 약 1,500명의 회원을 감리했다. 와델 장로는 5월에 이미 귀환했고, 그랜트 장로는 대구에 새로운 지부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인순 형제와 이영범 형제, 홍병식 형제는 각자 미국 유학 길에 올랐기 때문에 몰몬경 프로젝트는 공중에 뜬 상태가 되었다. 카 회장은 제3니파이의 번역이 다소 딱딱하고 지나치게 직역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출판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전에 대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때 홍병식 형제가 먼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영범 형제에게



한국어 몰몬경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몰몬경 번역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바탕으로 신앙과 간증을 통해 그 성스러운 일에 헌신했다. 아래 사진의 정대판 형제와 한인상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제3니파이 한 권을 보내면서 번역을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영범 형제는 ‘더 나은 번역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라는 회신을 카 회장님에게 보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⁴

대구 지부가 제대로 돌아가자 1963년 1월에 그랜트 장로는 몰몬경 작업에 복귀했다. 그는 번역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인 교수와 상의할 정도로 깊이 파고들었다. 영어를 직접 번역하고,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로쓰기를 하고, 흠정역 성서와 같은 고어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들었다. 침례교 목회자에서 개종한 이민태 형제도 이 프로젝트에서 그랜트 형제와 잠깐 동안 같이 일했다.⁵ 그러다가 카 회장은 정대판 형제에게 과거의 번역을 살펴보고 일본어 몰몬경과 비교하여 한글 문어체로 잘 다듬어 보라고 부탁했다. 그랜트 장로는 선교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이 프로젝트에서 정 형제를 도왔다. 그랜트 장로는 1963년 8월에 귀환했다.⁶

1964년 4월 21일 한국을 방문한 힝클리 장로는 정대판 형제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고 그를 몰몬경 번역자로 공식적으로 성별했다.⁷ 1964년 8월에 로널드 닐슨 장로는 2년 반의 봉사를 마치고 귀환할 예정이었다. 그는 봉사 기간을 연장하고 몰몬경 프로젝트를 도우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정대판 형제의 번역 원고를 읽고 영어 몰몬경과 비교하여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1964년 9월에는 몰몬경 번역 속도를 높여 노력했다.

낭독 위원회가 이호남 형제, 오계희 형제, 구중식 형제, 정대판 형제, 로널드 케이 닐슨 장로, 로스 에이치 콜 장로, 카 회장으로 구성되었다.”⁸ 닐슨 장로는 정기적으로 정대판 형제와 만나 숙어에 담긴 의미와 특이한 영어 표현, 낯선 어법, 예를 들면 “olive vineyard”와 같이 몰몬경에 있으나 실제로는 “olive orchard”를 의미하는 구절에 대해 상의했다. 넉 달 뒤인 1964년 12월 1일에 닐슨 장로는 귀환했다.

이 시기에 적어도 두 가지 번역본이 출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1962년 5월에 교정쇄 상태에 있던 홍병식 형제의 번역본이고, 다른 하나는 1963에서 1964년 걸쳐 정대판 형제가 손으로 쓴 원고였다. 한인상 형제는 이 두 번역본을 살려서 출판하기에 적절한 때끄러운 번역본을 만드는 어려운 임무를 받았다.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학자들이 그 이전에 있던 영어 번역 성경에서 가장 좋은 표현을 모아 가장 훌륭한 성경 역작을 만들 수 있었듯이, 한인상 형제도 그 이전에 있었던 번역본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그런 번역본들은 1967년에 한인상 형제가 한국어 몰몬경 출판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주

1. 브루스 케이 그랜트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0년 12월 20일.
2. *Korean Mission Journals*, Korean Mission Journal Publication Committee, Alexander's Digital Printing, 2004, 59쪽.
3. *Korean Mission Journals*, 58쪽.
4. Hong ByungShik, Oral History 3968, Church History Department.
5. *Korean Mission Journals*, 66 쪽.
6. 브루스 케이 그랜트 형제가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에게 보낸 이메일, 2010년 12월 20일.
7. *Korean Mission Journals*, 91 쪽.
8. 같은 책, 91 쪽.



정대판 형제(왼쪽)와 한인상 형제(오른쪽).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 12월. 일본 지진 해일 피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회원들과, 먼 타국의 회원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한 회원들, 그리고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회원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재해의 현장에서 얻은 교훈

처음에 일본 지진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늘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인 줄 알았다. 그러다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일본 지진과 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EFY를 다녀온 내게 부모님께서 일본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다. 나는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전히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채 일본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그제서야 나는 많은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내가 가는 곳이 위험한 지역은 아닌가, 내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함께한 한국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이라 할만 한 열 몇 시간의 버스 여행을 했고, 나는 봉사 활동을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

다음 날, 편하고 쾌적한 호텔에서 나와 피해 지역으로 갔을 때 내가 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폐허 그 자체였다. 아니, 영화에서도 보지 못할 장면들이었다. 해안가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고, 집들은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막대한 피해 현장을 보며 자연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일은 잡초 뽑기였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단순한 일을 맡았는데 나는 그 사실이 불만이었다. 너무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일까? 잡초를 뽑다가 나는 종종 친구와 잡담을 했다. 그때 함께 간 스테이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몇 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회장님의 부드러운 충고에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반성했다. 나는 그때까지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 큰 특권이자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일을 끝냈다. 나는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은 다만 주님의 일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소망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배태운 형제와 같은 시기에 재해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한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정진용 형제 가족

두려움 없이 앞장설 것이다.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배태운 형제〉

가족과 함께한 봉사 활동

우리는 군복무 중인 아들만 빼고 가족 모두가 일본 지진 해일 피해 복구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평소에도 교회의 모든 활동 모임에 참석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던 우리는 봉사 활동 또한 교회 모임의 연장이라 생각했다.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도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다. 제일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였다. 가족 6명이 한번에 가려니 꽤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밤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자녀들은 모아놓은 용돈을 보태겠다고 했다. 네 자녀가 지금까지 모은 용돈을 합치니 그것만으로도 항공료의 80퍼센트가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우리 부부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해결했다. 두 번째 문제인 자녀들의 보충 수업과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친척들과의 여행 등도 잘 해결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피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정리가 많이 된 상태였다. 그래도 처참했다. 마을 전체가 파괴되었고 구겨진 자동차, 부서진 건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인명 피해가 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고, 실제로 봉사 활동 중에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는 주로 도로에 쌓인 진흙과 잔해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하수구 정비 등을 도왔다.

나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비록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함께했던 일본 회원들, 미국 회원들, 한국 회원들 등 여러 나라의 회원들이 서로의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 줄 수 있다. 개인으로 볼 때 이번 봉사 활동은 작은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후기 성도들의 사랑과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복음이 가르치는 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인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아서 2:17)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청주 스테이크, 정진용 형제〉

성전 청소 봉사를 하며

나는 1987년에 강릉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돌아가신 분들의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내 개종의 계기였고 그런 만큼 개종 후에는 성전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에 생각만큼 자주 성전에 가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는 성전과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성전을 자주 방문했다. 성전 청소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정도쯤이었다. 성전은 늘 깨끗한 곳이었기에 누가, 어떻게 성전 청소를 하는지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처음 성전 청소에 참여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회원들은 자진해서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작은 먼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닦아냈다. 나는 샵들리에를 닦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 장식물 하나하나를 다 닦으려니 목과 팔이 아팠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기꺼이 하면서, 자기 집보다도 더 열심히 청소하는 다른 회원들을 보며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다.

내가 매번 빠지지 않고 성전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덕분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성전 청소를 하러 가던 날 아직 어린 손녀들을 돌봐 주시겠다고 해서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내 봉사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봉사를 해 주신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계속 청소 봉사를 하고 있다.

어떤 봉사를 하든 봉사 뒤에는 행복을 느끼는데 성전 청소 봉사를 하고 난 뒤의 느낌은 조금 더 특별하다. 전에도 성전은 편안한 곳이었지만 청소 봉사 이후에 방문하면 정말 내 집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내 작은 봉사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성전에서 주님의 영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하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다. 성전 청소 봉사를 하면서 나는 그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박희옥 자매〉

필리핀 회원들을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로버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와드 회원들은 필리핀 성도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차비가 없어서 한 가족이 돌아가며 교회에 참석하고, 옷과 구두가 없어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하고, 생활 필수품 자체가 부족하다는 가슴 아픈 사연에 와드 회원들은 그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와드평의회 때 의논한 결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필품 중에서도 옷, 신발, 넥타이 등을 모아서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했다.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깨끗한 옷가지들을 와드로 들고 왔다. 스테이크에도 알려져 다른 와드의 회원들도 동참했다. 한 회원은 열 개도 넘는 깨끗한 넥타이를 내놓았다. 와드에 쌓인 물품들의 양은 매주 늘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회원들도 행복을 느꼈다. 결국 우리는 제일 커다란 상자 3개에 가득 채울 만큼의 물품을 모았다. 라면 상자에 넣는다면 24 상자가 나오는 분량이었다. 회원들은 모든 물품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포장했다. 문제는 필리핀까지 배송하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또 모여서 의논했다. 많은 회원들이 서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자원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냈고, 비싼 배송 요금 문제까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필리핀 회원들에게 물품을 보내고 얼마 후, 로버트 형제가 속해 있던 와드의 감독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고맙고 행복하고 한국 회원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와드 회원들은 그 메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물품 지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크리스마스 모임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 줄 수 있도록



필리핀으로 보낸 물품 중 일부와 그 물품을 받은 필리핀 회원들.

약간의 현금을 보내 줄 계획을 세웠다. 내년에는 새로운 지원 계획을 더 만들 것이며 와드끼리의 자매결연도 생각 중이다. 회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 준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가 두 번째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와드 회원들 모두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이호중 감독〉

독자가 만드는 2012년 지역 소식

새로운 한 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가 되면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연재 기사가 추가되고 회원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특집 기사도 매달 소개된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한국 성도의 소리'와 '침례의 물가에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경전 구절'은 2012년에도 독자들을 찾아간다. 2012년 한 해 동안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소개할 기사들은 독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다. 어떤 기사들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1. 함께 즐거워하며

각 단위 조직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 모임들 중 독특하고 재미있는 활동 사례들을 소개하고 전국의 회원들과 공유한다. 독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활동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례들을 보며 스테이크나 와드에 적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 같은 신앙

한국의 교회에도 외국에서 온 회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 이주를 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회원도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회원들도 있다. 지역 소식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본인이 한국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외국인이거나 주위에 외국인 회원이 있다면 제보할 수 있다.

3. 황금빛 신앙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요즘, 교회에서도 성성한 백발을 휘날리며 봉사에 매진하는 회원들이 있다. 인생의 황혼 무렵에도 눈부신 신앙을 행사하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모집하고 소개한다.

4. 비축,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비축의 모델과 비축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의 성공담을 모집한다.

5. 가정 복음과 가정 방문 교육 사례

가정 복음과 방문 교육을 통해 재활동화 된 이야기, 특별한 사연이 담긴 이야기들을 기다린다.

6.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동반자들

한국인 부부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소개한다.

보내실 곳

위의 기사에 해당하는 간증이나 이야기, 그리고 제보가 있다면 다음의 안내에 따라 보낼 수 있다.

분량: A4 한 장(소속 와드와 연락처 기재)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번지 3층.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전건우 형제) 앞.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문의: 02)2232-1441(내선: 564)

후 기의 경전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우리는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계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계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계시를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계명에 순종함

어떤 계명은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연차 대회 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의 힘을 기억하며, 개인적인 계시와 간증을 구하고, 회개라는 신성한 은사를 누리며, 성전에 가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며, 부름을 완수하라는 등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본질에 관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니파이후서 31:7) 또한 “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제3니파이 27:1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세적인 계명에 순종함

어떤 계명들은 현세적인 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바로 지난 10월 연차대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며, 우리 자신과 가족의 필요사항을 돌보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돌보며,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라는 등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되풀이해서 배워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구주께서 공부를 하였고, 목수로서 훈련을 받았으며,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보는 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세금을 낼 필요성을 깨닫고 계셨습니다.(마태복음 17:24~25 및 마태복음 22:17~21 참조) 현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다음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땅의 법을 어기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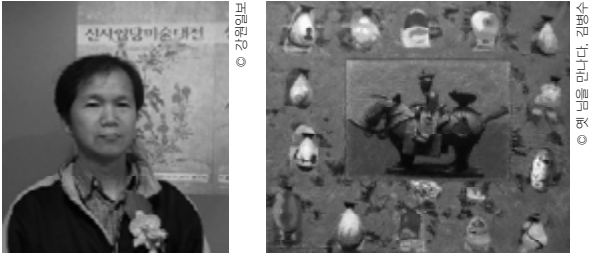
현세적인 계명과 영적인 계명은 하나로 결합됨
영적인 계명과 현세적인 계명 사이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은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를 하나로 결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두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므로 이를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 가족, 교회에서 우선 순위는 이 두 계명을 기초로 정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목표와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10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

순종을 통해서 받는 축복

몰몬경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몰몬경을 읽노라면, 리하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니파이전서 2:1) 우리는 니파이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이를 여러 세대를 거쳐 되풀이합니다.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 (니파이전서 2:20)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도시 전체가 고통을 겪었던 일도 알게 됩니다. (앨마서 16:2~3 및 앨마서 30:6~60 참조)

코이치 아오야기 장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의 비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선지자의 권고에 따릅니다. 단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도움과 구원의 손길”, 2010년 4월 연차대회) 우리의 자유의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

주님의 은사로 재능을 발전시키며



나는 유년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예쁜 기와집이나 신기한 자동차들을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다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나중에는 형의 공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쯤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그림은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꾸준히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장애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학에는 입학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반대도 심했다. 절망적이었던 내 삶에 희망의 싹트기 시작한 건 복음을 알고부터였다.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BYU 프로보에 입학했고 미술 공부에 열중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장애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었고, 유학 생활 동안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며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템플스퀘어 방문자 센터에서 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은 내 간증은 물론이고 재능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지난 9월 7일, 나는 제21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 대전에서 '옛 님을 만나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오랜 공부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그 후 한 달 만에 제12회 신사임당 미술 대전에서도 '재회'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나는 이 모든 성취들이 주님의 축복임을 잘 알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발전시킬 때, 주님께서 장애의 벽도 훌쩍 뛰어넘을 만 한 방편과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지금도 축복문을 자주 읽는다. 자주 기도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한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예술적 영감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김병수 형제, 서울 스테이크, 농아 지부

서초구청장에게 전달된 감사패

2011년 7월 27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날 우면산 아래에 있는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도 밀려 내려온 토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 서초구청에서는 서초 와드를 위해 인력을 급파했고 구청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와드 회원들의 노력으로 와드는 신속하게 제 모습을 되찾았다.

이에 서초 와드 감독단과 한국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을 찾아 진익철 구청장에게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회 측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하며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선물 교환과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또한 진익철 구청장의 부탁에 따라 서초 와드의 박봉규 감독이 축복 기도를 했다. ■



계속해서 소개되는 교회 서적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저서 <위대한 원칙>의 출간과 독서 감상문 대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위대한 원칙>은 인터넷 서점 종교 부문에서 판매 상위권에 올라가는 등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결과 뒤에는 한국 공보 위원회와 LDS 비즈니스 클럽이 있었다. 두 조직은 앞으로도 교회 서적을 꾸준히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의 배동철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 보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훌륭한 서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 데저렛 출판사가 판매한 베스트셀러를 가운데 우리나라 회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엄선하여 년간 서너 권 정도 번역 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 번역 출간을 앞둔 책이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의 “How to succeed with people”과 몬슨 회장님의 “To the Rescue”를 조만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서적을 번역 출간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상의 살아 있는 유일한 주님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적을 통한 것입니다. 출간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공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LDS 비즈니스 클럽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에 참여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편견과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 회장: 황준성 장로(전임: Wade, Steven Schroeder 장로)
-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회장: 김낙형(전임: 석동진)
- 부산 스테이크**
대신 지부 회장: 김병규(전임: 조한준 장로)
-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와 신림 와드가 통합하여 노량진 와드로 변경
노량진 와드 감독: 김영환(전임: 김영곤(동작), 최창순(신림))
- 서울 북 스테이크**
원당 와드 감독: 홍하식(전임: 양성일)
-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감독: 안병선(전임: 박일훈)
안산 와드 감독: 채승병(전임: 이재철)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5명



김언약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캘리포니아 산
페르난도 선교부



윤호연 장로
창원 스테이크
마산 와드
대전 선교부



김의준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애리조나 투산 선교부



정진수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캐나다 켈거리 선교부



박범진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



최진주 자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오민주 자매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템플스퀘어 선교부



김연자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한국 서울 성전



염경희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
한국 서울 성전



오계희 장로 / 오경아 자매
페더럴 웨이 스테이크
레이니아산 한국인
지부
한국 서울 성전



김명중 장로 / 김정옥 자매
브랜든 플로리다
스테이크
세프너 와드
한국 서울 성전

lds.or.kr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